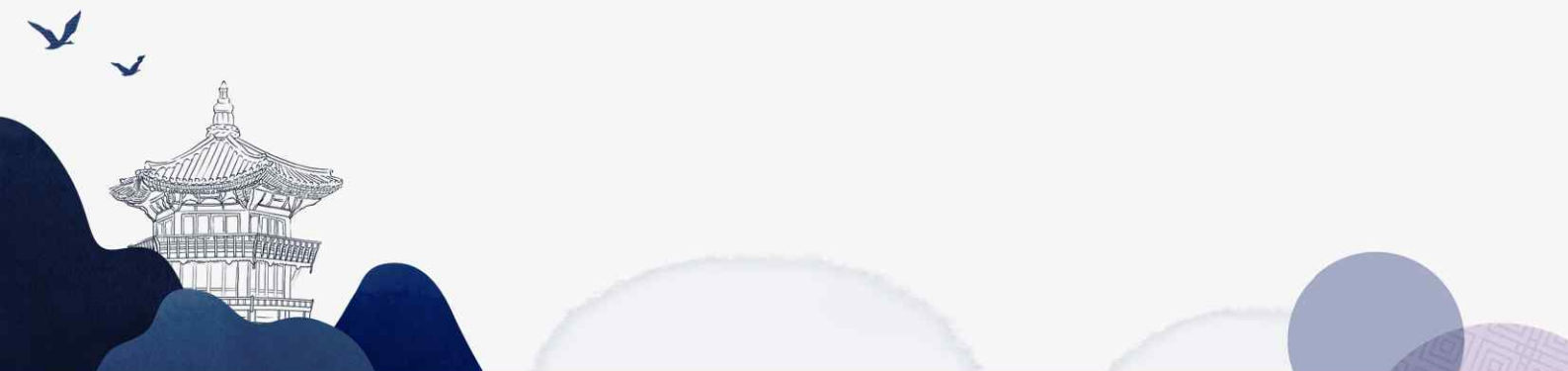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8
4	讲义	60
5	퀴즈	83
6	토론	88
7	자료	91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

학습목표

-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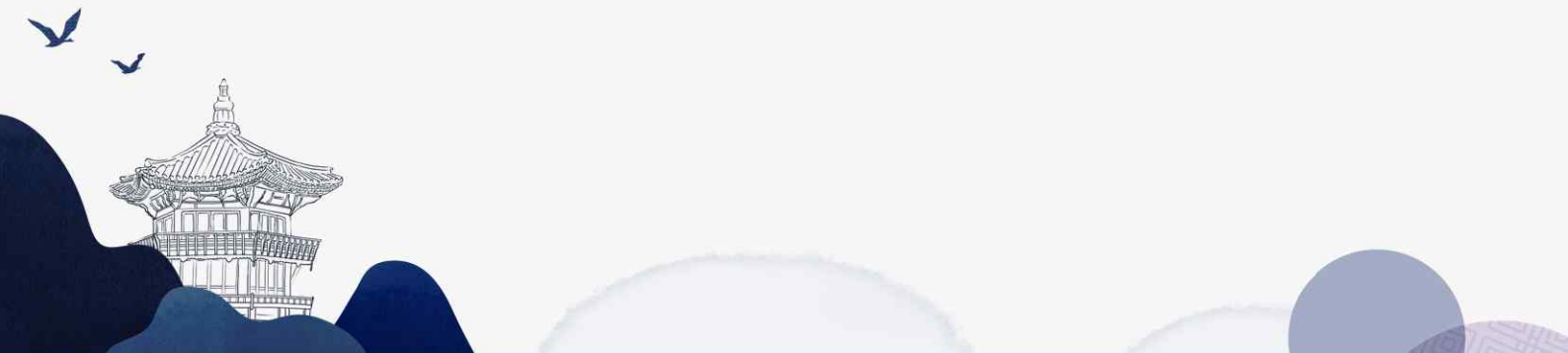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2 주차

《한국통사(韓國痛史)》 읽기

12-1 사공간 인식 읽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한국통사》의 강의를 맡은 김태웅입니다. 이번 강의는 열두 번째 강의로 '한국통사 읽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 강의 '한국통사의 이해' 후속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저자의 활동과 사상, 저술의 배경과 구성상 특징을 다뤘다면 이번 강의는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간 관계상 《한국통사》 서술 내용 가운데 주요 사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직접 읽고 탐독하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역사의 전개 과정은 인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도 그것이 펼쳐지는 공간적 기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박은식이 역사 전개의 공간으로 설정한 한반도 공간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통사(韓國通史)》의 본문을 가장 먼저 여는 꼭지는 지리 대강 즉 지리의 큰 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설서들은 바로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영토-국토와 자국의 역사-국사가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가까웠던 신채호 선생은 다음과 같이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나와 남의 투쟁이 시간적으로 발전하고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의 상태에 관한 기록이다.”

때문에 그는 때[時], 땅[地], 사람[人] 세 가지가 역사를 구성하는 삼대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즉 내가 활동하는 공간은 국사(國史)의 공간이요, 남이 활동하는 공간은 만국사(萬國史)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조선사를 서술하려는 바, 조선민족을 ‘아(我)’의 단위로 잡고, ‘아(我)’의 태어나고 자라고 발달해 온 상태를 서술의 제1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첫째, 최초 문명은 어디에서 기원하였으며, 둘째, 역대 강역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었으며, 셋째,……”순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근대의 경우, 지리는 분류사로서 ‘지(志)’에 속한 분류사로서 시간의 보충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찍이 정약용이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주체적인 처지에서 국토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천하에서 다 연구할 수 없는 것은 지리인 반면에, 천하에서 구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지리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역사에 부차적 구실만 해왔던 기존의 지지(地誌)와는 그 성격을 달리했습니다. 이러한 지리관은 근대 개혁기로 이어지면서 독자성을 점점 띠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민족 형성의 객관적 조건으로서 지역-영토의 공동은 혈연의 공동과 함께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사(韓國通史)》저자 박은식도 역시 역사의 무대라 할 공간, 즉 강역(疆域)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911년에 지은 『몽배금태조』에서 밝힌 대로,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 지리를 연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땅의 형세가 인물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청년들에게 지리 연구를 통하여 뜻과 기개를 키우고 마음의 바탕을 닦아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통사》지리 대강에서는 한국이 아세아 동남에 돌출한 반도국임을 명시하면서, 사방의 경계를 동해, 황해, 압록강, 두만강, 조선 해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대국가의 영역이라 할 대한제국 영토의 주권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토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근대적 자오선을 받아들여 동경, 북위 도수를 밝혔습니다.

특히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목격한 그로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그냥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서구 열강과의 수호통상을 언급하는 여타 대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 한국도 가히 유럽의 모든 약소국, 예컨대 스위스, 벨기에와 같이 독립하겠지만, 어느 한 나라가 우세를 독점하여 잠식을 시도하게 되면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가 왜 지리의 대강을 서두에 배치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박은식은 한국당대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근대 이전의 역사 큰 줄기를 지리 대강의 뒤에 배치하여 서술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사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흐름별로 정리해야만, 국내 독자들과 해외 독자들이 《한국통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의 첫 출발은 최초의 나라, 최초의 문명을 건설한 단군조선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의 유구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기자의 8조 금법을 언급하여, 국가 통치가 교화와 함께 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며 문명의 성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의 성장과 전개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발견된 광개토대왕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국이 문물을 일본에 전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해 역시 언급합니다. 비록 대조영의 출자를 말갈 속말부로 표현했지만, 발해사를 서술한 것은 발해사 역시 한국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선 시대의 세종 업적을 언급하는 가운데 훈민정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역시 한글의 우수성은 물론 한국인 문자 생활의 독자성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왜란 역시 서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역사상 가장 최대의 병란이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 따른 국력의 휴폐(虧敗)와 인구의 감소로 인해, 조선 후기 사회경제가 매우 어려웠고 결국 국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 북벌 시도가 좌절되면서, 헛된 문만 숭상하고 국방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국(大局)의 변천을 만나고, 이웃 열강이 서로 다투어 사변이 자주 일어나니 환란이 더욱 심해졌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망의 요인을 내부에서 찾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외부의 침략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통사(韓國通史)》 앞머리를 장식하는 지리 대강과 역사 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가 한국사의 주요 공간이되 만주 역시 제외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 대계에 서도 고조선을 한국사의 시작으로 파악하면서 유구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망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동시에 외세의 침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근대사의 서막을 알리는 대원군 정권과 문호 개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 문호 개방 거부와 문호 개방 읽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한국통사(韓國通史)》 앞머리를 장식하는 지리 대강과 역사 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통사(韓國通史)》에서 서술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통사(韓國通史)》에 대한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 읽기에 앞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사건들은 한국 근대사의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입니다. 여기에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갑오개혁, 독립협회 운동, 을사늑약, 의병전쟁,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 등 큰 사건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자주와 근대화, 침략과 저항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로, 이후 한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 한국인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호 개방거부와 문호 개방과정에 대하여 한국 근대사의 서막을 알리는 대원군 정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 정권에 대한 통설은 《한국통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 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통사》속에서 비친 대원군 정권의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박은식의 대원군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보겠습니다.

만사를 독단하여 권세를 휘두르며,
현자를 얻으려 하지 않고,
정권을 잡자 토목공사(경복궁 중건 등)를 서둘러 횡령을 일삼았으며,
형륙(刑戮)을 남용하였으며,
쇄국을 스스로 장하다 하여 대세의 흐름을 부질없이 반대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단점이요 실정인 것이다.

박은식 역시 대원군의 이른바 쇄국정치, 경복궁 중건을 들어 그의 실정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의 개혁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도 인정하고 있듯이 대원군은 정치상 혁명가로서 세도정치를 종식시켜 권척을 배제하고, 문벌을 깨뜨리고, 호포제를 실시하였으며, 서원을 철폐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박은식의 표현대로 '정치상 대혁명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오군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원군 집권 시기에는 재정이 풍족하고 관리들이 청렴하여, 민란이나 군변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매천 황현이 대원군 정권의 개혁을 무시하고 경복궁 중건과 독단적인 정치 운영을 비난한 것과 대조됩니다.

황현은 양반으로서 대원군의 조세개혁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반면에, 박은식은 이러한 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은식이 양반 중심의 역사관을 견지하는 황현의 역사관을 극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근대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강화도조약 체결에 관한 서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식은 대원군의 문호 개방 거부정책도 비판하지만,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을 비판합니다. 기존에 양자택일적 사고방식으로는 박은식의 이러한 자강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수 자강의 실력이 있고서야 문호를 개방하여 열강을 연호(聯好)하면,
상업이 교역과 물품의 수입 등 이익을 얻음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스스로 지킬 만한 실력도 없으면 저들 강대국과 함께 울타리[藩籬]를 헤쳐버리고
속까지 드러내 보이게 되므로, 허약한 진상만 더 드러내 보인다면
병탄의 야심을 깨우쳐 주게 되고 침탈의 편익을 제공해 주는 꼴이 되어
이러한 개국 정책 또한 패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외국인과 함께 상전(商戰)을 개시했으니
우리의 공상(工商)의 실력이 경쟁할 만하다면 보유한 자원이 하룻밤의 근심도 되지 않을 것이나
우리가 이러한 실력이 있단 말인가.

이러한 그의 지적은 오랫동안 개화주의에 밀려 좀처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개항은 결국 국망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결코 위정척사파의 지적이 아니라 당시 현실에 비추어 본 역사적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자 자신이 강화도조약의 내용 전문을 제시하여 불평등 조약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개항 전에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조약 체결을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였더라면, 그리고 일본의 개항 요구를 좀 더 슬기롭게 미루면서 국제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쌓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훗날 역사가들은 오로지 위정척사와 급진개화의 양자택일만 강조하면서 후자의 길만을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박은식은 약소국 벨기에와 덴마크의 경우, 유럽국가와 동등하게 조약을 체결하였음을 언급한 이 홍장의 충고를 전하면서 내수외교(內修外交)와 군비(軍備) 확충(擴充)을 강조합니다.

박은식의 우려대로 강화도조약과 조일수호조규 부록에 따른 많은 경제적 피해가 속출합니다. 즉, 조선에서 영사재판권과 무관세가 허용되면서 국내 산업이 보호를 받지 못해 일본 상인의 경제 침투가 가속화되고, 대다수 국내 상인들의 상권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조선의 무역 수지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1889년의 경우, 수입액이 수출액의 2배 이상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극히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박은식이 준비 없는 개항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지적한 부분과 유사합니다.

그리하여 외세의 이러한 경제 침투는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도시 빈민의 불만을 야기하게 됩니다. 1882년 임오군란은 그러한 불만의 표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호 개방 거부와 문호 개방 읽기에 대하여 한국 근대사의 서막을 알리는 대원군 정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통사》의 자주와 근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3 자주와 근대화 읽기

지난 시간에는 문호 개방 거부와 문호 개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통사》의 자주와 근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개항이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오군란이 반외세의 폭발이었다면, 갑신정변은 임오군란 진압과정에서 부각된 청의 간섭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오군란은 1882년 고종 19년 6월, 서울에서 하급 군인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도시 하층민의 대규모 저항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병자수호조약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조선 정부가 본격적으로 문호개방정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후일 많은 역사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1882년에 상경하여 임오군란을 직접 목격하였던 저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요? 저자의 경우, 오늘날과 달리 이 사건의 원인을 민씨 척족의 부정부패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지 저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당대 황현이나 정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황현은 명성왕후가 원자탄생 이후 기복을 위해 국고를 탕진한 것과 민씨 척족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그 결과 대원군이 모았던 재정이 탕진된 것을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란이 급격하게 확대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자는 '난' 자체에서 원인을 찾았을 뿐 대원군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원군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경하를 보냈으나 그가 쫓겨났으며, 난을 일으킨 군인들이 대원군에게 찾아와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대원군은 고종의 명을 받아 진무에 힘을 썼으며, 난군들은 대원군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움직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대원군은 고종의 명을 따라 난군을 무마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난군을 따라가는 분위기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를 쓴 정교는 대원군이 이 사건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으려 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대원군이 군병을 보내 난군들을 사주하고 민씨 척족들을 공격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밀계설(密計說)입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밀계설(密計說)에 비중을 두고 대원군이 임오군란을 처음부터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전개 과정에 깊이 개입하여 확산되도록 조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박은식의 이런 주장은 밀계설을 따르지 않고 난군의 독자성에 비중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저자는 수습 과정에서 대원군이 신뢰하여 이끌어 주었던 많은 인물들이 임오군란 이후 모두 피살되었음을 주목하는 가운데, 사대부로서 국가 및 민족과 크게 관계하여 피를 흘린 사람들이 적은 반면에 정국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하여 피를 흘린 사건이 마냥 있었음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오군란으로 인해 일본과 청이라는 외세가 조선 정부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청은 임오군란을 진압하면서 조선에서 우위를 점했고, 일본은 이런 후퇴를 만회하려는 듯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국통사》를 읽는 별미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생생한 서술입니다. 갑신정변에 대한 서술과 그 사론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분량도 많거니와 그 자신이 동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결코 낯지 않았습니다. 또한 갑신정변만큼 역사가와 일반인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당대인이 바라본 갑신정변의 백미라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에 김옥균, 박영호 등의 급진개화파가 근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일으킨 정변입니다. 비록 '3일 천하'로 끝났지만 이후 개혁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갑신정변을 '혁명당지란(革黨之亂)'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갑신'이란 명칭이 1884년을 60간지로 바꾸어 부른 데서 나왔다면 '혁명당지란(革黨之亂)'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혁당 즉 개혁당의 운동임을 인정하면서도 난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혁명도 아닌 '난'이라 불렀던 것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국이 조선 내정에 깊이 개입하면서, 청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각각 본보기로 하여 개혁을 추진했던 동도서기파와 급진개화파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국가 재정의 위기를 둘러싸고 전개된 민씨 정권과 급진개화파의 대립이 극에 이르렀음은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당대를 살았던 인물로서 사건의 발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과 국내 정치 세력의 역학관계에서 정변의 배경을 찾았습니다.



특히 일제의 주도설을 부인하면서, 김옥균 등이 청국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일본 메이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정변을 일으켰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김옥균이 주도하였고 일본이 협력한 셈입니다. 이 점에서 종래 일본인 학자가 주장하였던 일본의 사주설은 매우 허황된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자는 갑신정변의 발발과 전개 과정을 매우 생생한 문체로 상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특히 우정국의 정식 명칭인 우정총국의 낙성식 이후 참석자의 피해 과정에 대한 묘사는 매우 생생합니다. 이 중 이후 문제의 빌미가 된 김옥균의 일본 공사 호위 요청에 관한 고종의 승낙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일본군은 1개 중대밖에 되지 않는 병력이지만, 일본 병력을 궁중 안에 끌어들이는 것은 정변을 일으킨 측으로서는 승패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종의 친서에 대한 후일의 역사 서술은 매우 제각각입니다. 김옥균이 정변 이후에 남겼던 『갑신일록』(甲申日錄)에서는 고종이 김옥균의 요청에 따라 연필로 백지에 “일본공사래호짐(日本公使來護朕)-일본 공사는 와서 나를 호위하라”를 친히 썼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당시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의 주장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이른바 친서에는 ‘일사래위(日使來衛)’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변의 당사자인 김옥균이 이런 4자의 구절을 잊어버리고 7자의 구절이라고 기억했다는 자체가 김옥균 스스로가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저자의 말대로 김옥균이 일본 병력을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고종이 거부하자, 그들 마음대로 백지에 연필로 ‘일사래위’라는 네 자를 쓰고, 일본 공사에게 병력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저자의 이러한 서술은 정교의 『대한계년사』의 서술 내용과 당시 조선 정부의 일본에 대한 추궁에서 나온 사실 등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은 서술 내용입니다.

그 밖에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생생한 서술은, 오늘날 학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단히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박은식이 현장에 없었으나 갑신정변의 정황을 잘 아는 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거나, 관련 사료를 찾아 서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이처럼 김옥균 일파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일본 병력을 끌어들이고 정국을 장악하고자 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저자는 근대적 역사서술과 달리 ‘안(按)’을 따로 부쳐 갑신정변을 사관(史官)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변 세력의 일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갑신정변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저자는 갑신정변 정황을 잘 아는 친구의 입을 통해 이러한 점을 전하는 동시에, 그 자신의 갑신정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진보는 저들에게는 불리한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진보하려는 기세를 볼 것 같으면 저들은 반드시 많은 방법을 짜내어 헤치려 들 것이지 도와주려 하겠는가”라고 하여 정변 세력이 일본의 의도를 모르고 이용당하였음을 단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옥균과 박영효의 망명 생활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배신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 역시 정변을 이끌었던 주모자들이 혁명가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력이 짧고 연구가 깊지 못한 나머지, 급격히 추진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급격한 쿠데타적 방법보다는 계몽 운동을 통해 인심을 잡았어야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혁명가는 천하의 지극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기의 힘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 했음을 비판한 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맺음말에서 천하의 형편을 알고 열성과 연구의 깊이가 있지 아니하고, 한갓 거칠고 대담한 예기(銳氣)로 급격히 거사하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면서도 정교의 『대한계년사』와 달리 정변 세력이 공포한 국정 개혁안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저자 자신이 정변을 주도했던 인물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자의 갑신정변 서술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저자의 논평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저자가 김옥균을 추앙하는 일본 내 식자층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자가 갑신정변의 주도자가 김옥균임을 밝히는 동시에, 갑신정변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인용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1894년 전라도 서북 일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크고 조직적인 농민전쟁이 전국 규모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른바 동학란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민란의 연장선으로 동학이 주도된 난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학란은 농민들이 개혁의 주체로서, 이 시기 당면 과제였던 토지 문제를 비롯하여 조세, 신분, 외국 상인의 경제 침투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집강소를 설치한 뒤에는 스스로 개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학란은 당시 조정 관리는 물론이고, 많은 식자층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은식 역시 이러한 사건을 목격하면서 동학란을 많은 지면에 걸쳐 서술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자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결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자 역시 동학란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대란과 중·일 대전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동학란 당시에 서울에 있으면서 정부의 조치를 옆에서 면밀히 보면서 자기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동학란 자체에 대한 서술에 앞서, 난과 깊이 관련된 동학의 연원과 사상을 면밀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학과 동학란을 연계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이 전파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정감록의 영향과 함께 양반과 상민, 천민의 신분 대립, 그리고 토호들의 무단과 아울러 관리들의 탐학과 수탈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학은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탐관오리 주살, 민생 구제, 간당(奸黨) 소탕, 국가 지탱을 내세워 팔방으로 전파되었다고 봅니다.

동학란의 전개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봅니다. 하나는 고부 민요 단계이고, 또 하나는 이용태의 탄압으로 인해 민란에서 동학란으로 발전한 단계입니다. 이 중 저자는 두 번째 단계인 동학란에 주목하면서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 시발을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이 합류한 백산대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랫동안 정설로 내려왔는데, 근래에 신용하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 발굴을 통해 현재 전라북도 고창군의 무장(茂長)을 동학란 최초의 봉기지로 확정하고, 그 사건을 무장봉기(茂長蜂起)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러한 오류는 당시 동학란에 대한 정보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고부농민봉기, 제1차 동학농민전쟁, 집강소,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한국 문제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김옥균 피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에 유의하여 일본 민간인들이 몹시 한스럽게 생각하고 무력으로써 씻어보려고 하였음을 강조하면서, 국제 결렬의 한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갑신정변 해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나 극우 식자층이 청일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벌인 정치 행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의 인식을 통해 당대 식자층의 동학에 관한 평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즉 저자는 동학의 미신적인 성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학당이 본디 정치사상과 혁명의 성격을 포함했으나 무식한 무리에게서 나왔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격하고 잔인했던 종래의 계급 관념은 이로 말미암아 무너졌으니 또한 가히 개혁의 선구라 이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군대가 서울로 들어와 개혁을 착수하면 외인들의 간섭이 미치지 못할 것이니, 서구 혁명의 핏빛을 다시 아시아 동쪽 반도에서 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갑오동학란은 허물이 정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가 허물을 농민에게 돌리고 청국에 원병을 청한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부가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당국자에게 원병 요청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첫째, 다른 나라에게 위급함을 구해달라 애걸하는 것은 국가의 큰 수치이며, 둘째, 청일 양국이 천진조약에 따라 군대를 파병하면 우리나라가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견이 적중했음에 통탄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역사가에 앞서서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지식인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저자가 청일전쟁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청일전쟁 전황을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일본군의 치밀한 전략 앞에 외교론을 펴던 이홍장의 패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서술은 당대 원사료를 열람하기보다는 중동전기를 보면서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청일전쟁에서 전쟁 선포국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습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동학란과 청일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동학란이 조선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일어난 혁명운동이었다면, 후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 간의 각축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이 두 사건은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분기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통사》의 근대 개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 근대 개혁 읽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통사》의 자주와 근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통사》의 근대 개혁 서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란과 청일전쟁은 조선 정부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갑오개혁과 이에 반발한 아관파천 그리고 대한제국 수립과 대한제국을 멸망에 이르게 한 러일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오개혁은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조선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개혁운동을 일컫습니다. 비록 개혁이 외면상으로는 일본의 침략으로 촉발되었지만, 내면상으로는 동학란을 비롯한 국내 민인들의 개혁운동 등에 선을 대고 있습니다. 갑오개혁으로 조세제도 및 재정제도가 개혁되고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밖에 재판소 제도가 도입되고, 근대 학교가 설립되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저자 역시 이러한 근대 개혁에 주목하여 군국기무처에서 결정한 의안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국기무처는 일본의 강요로 설치된 일종의 비상 개혁 추진 기구였지만, 일본이 청일전쟁에 몰입한 까닭에 이 기구는 정부나 개화파들이 구상했거나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일정 정도 반영하면서, 일본의 간섭을 덜 받으며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군국기무처 의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군국기무처가 초기에 결정한 의안들을 중심으로 개혁의 방향과 성과들을 대거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세제도 및 재정 개혁을 비롯하여 신분제 폐기, 관리 선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의안은 회의 벽두에 의결된 의안 제1호로서 “금후 국내외의 공사문서는 개국 기원을 쓴다”라는 표현을 빌려, 조선이 중화지배질서에서 분리되어 나왔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때까지 조선은 중국 황제의 연호를 공사문서에서 써왔는데, 이제는 이를 폐기함으로써 중화지배질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조선 정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러한 의안의 의결 시점이 청일전쟁의 발발 직후라는 점에서, 조선 정부가 청국과 대등한 근대 국가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온 의안 제2호 역시 조청수륙무역장정 따위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나아가 원세개의 방해로 인하여 좌절된 바 있는 권리를 살려 서구 여러 나라에 공사를 다시 파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외관계의 이러한 개혁에 그치지 않고, 대내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 걸쳐서 중요한 개혁 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러한 의안들을 통해 갑오경장의 근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 역시 갑오개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지만, 원제목을 '아국개혁(我國改革)의 신정(新政)'이라고 붙일 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사론에서 실학을 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자가 일찍부터 사숙(私淑)했던 정약용이 비판한 바로, 성리학을 주업으로 할 뿐 재정, 군사, 형벌, 외교 부문의 실용 지식을 멀리하는 당대 산림 또는 유일(遺逸) 등의 식자층과 확실히 다른 점입니다.

즉 과거 성리학의 폐해와 이에 따른 봉당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반계 유형원,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등의 개혁론을 대정론(大政論)이라 지칭하면서 그들의 개혁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개혁론이 기존 성리학의 폐해와 봉당 정치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실용적이고 공리적인 학문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학의 발견입니다. 실학은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지주제와 신분제를 개혁하여 소농민, 하층 신분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보장하고, 부국강병(富國強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구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갑오개혁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이후 일본 정부의 간섭과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타율성론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계는 일본 학계의 이러한 타율성론을 극복하는 가운데, 일본의 정치 군사적 간섭으로 인해 갑오개혁의 자율성이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혁 전통을 이어받고 농민들의 요구를 대다수 수용함으로써 근대국가 건설에 이바지하였음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혁 와중에 벌어진 명성왕후 시해사건은 오늘날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뜨거운 대목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조직적으로 은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자가 이렇게 사건의 전말을 자세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아관파천 직후 우리 정부가 시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권재형 보고서, 그레이트하우스 보고서 등을 재구성하여 꼼꼼하게 서술한 덕분입니다.

이 중 주목할 자료는 이른바 권재형이 작성하여 보고한 '사변 공식보고서'와 이 내용이 정확하다고 하여 첨부한 법무 고문관 그레이트하우스의 확인서입니다. 이들 자료는 1896년 1월 20일 히로시마 지방예심재판소에서 나온 '조선사건예심종결결정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박 보고서로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사변'에 관한 '완전하고 공평한 조사'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법무협판 겸 고등재판소 판사 권재형이 작성하여 법무대신 겸 고등재판소장인 이범진(李範晉)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법부는 이 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미리 안 일본 공사의 압력으로 관보에 게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한 외국인들이 간행한 Korean Repository 1896년 3월호에 게재하는 한편, 독립협회 서재필에게 내명하고 한글로 소책자 300부를 작성하여 간행케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일본 히로시마 지방예심종결정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반박하는 한편,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 일본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자료를 입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본 히로시마 지방예심종결정서도 여기에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저자는 다른 주제와 달리 원문 자료를 전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미묘한 문제를 원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한편, 한국인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유생들과 농민들이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정부와 일본은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노려 정동구락부 등 구미외교관과 가까운 그룹들이 고종과 세자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모셔감으로써 갑오개화파 내각은 무너졌습니다. 이른바 아관파천이었습니다.

1896년 2월 고종이 이처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김홍집 내각은 무너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자, 신정부는 근대 문물을 수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였으며, 대중 계몽에도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선 서양 문물에 밝은 서재필을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서재필을 비롯한 개화 지식층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협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독립협회에는 개화 지식인들과 함께 정부 관료들이 대거 관여하였습니다. 일반 대중도 기금을 내거나 강연회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독립신문의 발간과 독립문의 건립 등은 정부와 독립협회 및 국민들이 이룩해 낸 대표적인 결실이었습니다.



한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자,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황제 칭호를 쓰자는 상소가 잇달았습니다. 이러한 상소 대열에는 시전 상인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라 정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여 자주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대한이란 국호는 '삼한(三韓)'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삼한을 하나로 아우른 나라를 뜻하며, 광무라는 연호는 중국 한(漢)나라를 다시 세운 후한(後漢)의 황제 광무제의 연호로, 부국강병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897년 10월 3일 고종은 여러 차례의 사양 끝에 신하들과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12일 고종은 황룡포를 입고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정국의 이러한 변동을 보는 가운데 제목과 달리 대한제국 자체보다는 독립협회에 주목하였습니다. 그것은 독립협회의 활동이 애국운동이며 민권운동이라 여긴 반면에, 대한제국 정부는 강대국에 의존하며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독립협회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결국 정부의 독립협회 탄압을 지원한 일본의 속셈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립협회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즉 독립협회가 너무 조급하게 정치를 혁신하려 하여 성공을 서둘렀던 까닭에 정부와 알력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독립협회가 내놓은 지식의 근거(根基) 또한 일천하고 거침을 면치 못해 허영에 조급했고, 미쳐서 날뛰어 능히 처리해 나갈 수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자의 이러한 지적은 독립협회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요컨대 저자가 생각했던 개혁의 방향은 우리 국민의 힘을 두터이 하여 자강지도를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노력은 일본이 도발한 러일전쟁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자 역시 러일전쟁이 한국 근대사에서 커다란 비중을 갖고 있음을 알고 전황을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가히 전쟁사라고 할 만큼 육전, 해전 등 다양한 전장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대한제국을 서구 열강의 묵인 아래 불법적이고 무력으로 강점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 과정에서 일본군이 대한제국의 강토를 강탈하고 한국인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참상을 서술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일본군에게 동원되면 그들의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심지어 동원을 거부하면 러시아 첩자라고 하여 살해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군이 용산 일대의 땅을 군용이라 칭하고 모두 점령했으며, 한국인 가옥을 철거하거나 일반인의 전답을 해치고 무덤을 파헤치는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서구인들의 여행기, 저술을 인용하였습니다. 러일전쟁이 한국인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의 침략과 저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 일제의 침략과 저항 읽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통사》의 근대 개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의 침략과 저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일전쟁 이후 일제 침략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에 맞선 한국인들의 저항은 어떠한지를 《한국통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여세를 몰아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해 11월 18일 완전무장 차림의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겹겹이 포위한 뒤,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을사늑약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국가와도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한국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또 을사늑약에는 한국에 일본인 통감 1인을 두어 한국의 외교에 대한 사항만을 관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통감은 외교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한국의 모든 내정을 관장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을사늑약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자 '오건조약청체전말(五件條約請締顛末)' 기사를 대체로 활용하여, 일제의 협박 및 강제 체결 과정을 기술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고종과 일부 대신들의 거센 반대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끝까지 이토에 대항했던 참정대신 한규설의 조리 있는 논박과 당당하고 의기 있는 행동을 부각시키면서, 조약이 일본의 협박 속에서 강제로 체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군이 외부로 달려가서 도장을 빼앗아 날인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이라는 점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대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묘사함으로써, 을사오적의 탄생 과정을 소상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내용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거니와 일본의 검열이 매우 심했다는 점에서 저자가 여기에 참석한 대신의 전언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통사》의 출간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만천하에 알리는 동시에, 이후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연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 오늘날 관련 조약에 대한 연구자들의 치밀한 검토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조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임, 조인, 비준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조약은 세 절차 중 어느 것 하나도 거치지 않았던 것이 밝혀집니다. 우선 고종이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조약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아 위임장이 없었으므로 조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 대한제국 정부가 도장을 찍지 않고 일제가 군대를 앞세워 외부대신의 직인을 강제로 빼앗아 찍었습니다.

끝으로 고종이 끝까지 조약안을 거부하여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언론도 조약이라는 명칭 대신 '늑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고종은 을사늑약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이 조약이 무효임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906년에 프랑스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도 이미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905년 일본의 을사늑약 강요와 서구 열강의 묵인과 지지 속에,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외교권은 물론 내정에 대한 통치권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계몽운동과 항일의병전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우선 고종을 비롯한 왕실에서는 국제사회에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호소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은 만국평화회의를 주창한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가 1906년 4월 고종에게 극비리에 제2회 만국평화회의의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종은 일본의 침략과 을사늑약의 무효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그해 8월에 개최할 예정이던 이 회의에 특사를 밀파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열강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어 다음 해인 1907년 6월에 회의가 열리게 되자, 다시 특사 파견이 추진되었습니다. 비록 특사들의 활동이 일본의 방해 책동으로 인해 좌절되었지만, 대한제국 정부의 국권 수호 의지를 각국 기자들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당시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1일자에 실려 국내외 많은 민민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저자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건의 내막을 상세하게 서술하였음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서 다른 대목과 달리 그의 역사관과 국제 인식을 먼저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헤이그 특사 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냉엄한 질서와 열강의 이기주의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국제정세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야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그는 만국평화회의의 자체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흥정과 타협의 산물로 바라보며 우리가 평화라는 말에 현혹되어 특사를 파견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이미 1911년에 저술한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재판이 국제법에 따른 담판이라고 하는 것은, 강권을 가진 자와 이긴 자의 이용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약한 자와 열등한 자는 그 고통을 호소하고 억울한 것을 하소연할 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구미 열강과의 조약 체결을 언급하는 다른 대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즉 그는 이른바 조약문이 “모두 종이 위에 글자를 다듬어 놓은 데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자의 말대로 “자강·자립의 실력이 없이 허망하게 외국인의 달콤한 말만을 믿고 스스로 안심하는 것은 더욱 망국을 재촉할 따름”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군대해산 이후의 대한제국 군인들이 참가한 의병전쟁을 서술하였습니다. 군인들의 전쟁합류는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07년까지 의병들의 활동 지역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간도, 연해주 지역에서도 의병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은 해산 군인들의 참여로 무기와 전술, 군기, 군사훈련 등 전투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제의 무력 탄압에 밀려 이들 군인은 다시 국경을 넘어 만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립군의 근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흥무관학교 교관들의 대부분은 대한제국 군대의 장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독립군 양성이 밑거름이 되어 훗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들이 승리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훗날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유림학파와 함께 다수를 차지한 해산 군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의병이란 민군(民軍)이다. 국가가 위급할 때에 의리로 즉각 일어나 조정의 징발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한,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들이다.”

20세기 벽두 190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은 동아시아 각국 인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일제가 약속과 달리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나아가 만주를 손아귀에 넣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했던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들에게도 이 사건이 환호의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 식자층들은 이 사건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여 안중근의 행적과 사상을 담은 전기를 간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책의 저자 박은식이 1914년에 간행한 『안중근전』은 가장 대표적인 안중근 전기입니다. 따라서 안중근에 대한 그의 인식과 평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집필한 『안중근전』의 서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중근은 역사(행적)에 근거하면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한 지사(志士)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한국을 위하여 복수한 열협(烈俠: 義烈士)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이 안중근을 다 설명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안중근은 세계적인 안광(식견)을 가지고 스스로 평화의 대표로 나선 사람이다...
그(이토)를 죽이게 된 것은 안중근이 세계의 평화를 희망하고
이토를 평화의 공적(公敵)으로 인정하여
그 과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화를 막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생명을 내던지고 세계의 평화를 얻은 것은 무상의 행복이다.
주의가 서로 상반되어 같이 살 수 없는 결과로 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논할진대 안중근은 세계적 안광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평화의 대표를 자임할 것이다.
어찌 한국만을 위하여 복수한 것이라고만 하겠는가?

여기서 저자가 안중근의 행적을 서술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하여 처단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왜 그를 저격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토 저격 사건이 테러범 개인의 충동적인 공명심이 아니라, 계몽운동과 의병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터득한 독립운동의 방략과 오랫동안 구상했던 그의 동양평화론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안중근전』의 요약판이라 할 이 글에서도 지사로서의 안중근, 의사로서의 안중근보다는 동양평화를 몸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상가로서의 안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글은 이토가 왜 하얼빈에 가게 되었는가를 먼저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중근의 저격 동기를 이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글의 주조는 이토의 이른바 동양평화론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대립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중근은 일본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론을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이토를 사살한 이유는 바로 이토가 동양의 평화를 깬 위험한 인물이며, 그를 처단함으로써 일본이 동양 평화를 위한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아가 안중근은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일본 천황의 뜻을 거스른 이토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일본 정치체제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소치이기도 하지만, 안중근 자신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기 위해 당시 대한제국 침략에 선봉에 섰던 이토를 지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박은식은 안중근의 성장 과정과 행적도 그의 동양평화론에 연계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한국인, 중국인은 물론 일부 일본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이들이 안중근을 흠모하고 그의 필적을 구하려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안중근의사의 유묵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동양을 보존하려면 먼저 정략을 바꾸어야 한다. 때가 지나고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입니다.

요컨대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박은식은 통사에서 안중근의 의거를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한국 민족을 비롯한 세계만방의 피억압 민족에게 안중근의 충성은 동양 평화라는 높은 사상으로 제국주의라는 뒤틀린 길로 매진하던 일본 근대사에 던진 피억압 민족의 외침이었음을 널리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병합하였습니다. 우리는 1910년이 경술년에 당한 나라의 치욕이라고 여겨 이를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도 부릅니다. 저자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일제의 병합론과 일진회의 매국 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의 병합 계획은 일찍부터 마련되어 치밀한 계략으로 진행되었음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의 고위 관계자들이 자주 주장했던 내용으로, 일본은 한국 병합 의도가 없었으며 일진회의 합병 요청서를 근거로 내세워 병합은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저자가 주안을 두었던 점은 일제의 병합 과정에서 조약의 불법성을 밝히는 것으로 국제법에 입각하여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지 않으나, 순종 자신이 칙유를 거부하였음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준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저자인 박은식 자신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칙유가 발표되는 현장에 대한 오해와 과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윤덕영이 나라를 내주는 조칙을 만들어 황제에게 어새를 찍을 것을 요청하자 황제가 흐느끼면서 이를 허락하지 않자, 황제가 침실로 들어간 틈에 몰래 찍어 이완용에 건네주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에 근거한 것으로 실상 어새는 1907년 정미 조약 이후 통감부에 넘어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기술입니다. 또한 윤덕영이 조칙을 만들었다는 사실 역시 맞지 않습니다. 이 역시 통감부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일본 측의 요구에 대해 쉬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론케 해줍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병합을 알리는 칙유에는 마지막 부분에 당연히 있어야 할 황제의 이름, 즉 친서(親署)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박은식의 이러한 기술은 오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훗날 연구자들이 병합조약에 의문을 품고 연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진실을 남기려는 노력이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여 후세에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저자는 결론에서 다시 한번 『한국통사』 집필의 절박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즉 나라의 종교, 나라의 학문, 나라의 말, 나라의 글, 나라의 역사로 대변되는 국혼(國魂)을 잃지 않는다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설령 나라를 잃을지라도 언젠가 국혼에 기대어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는 역사가로서 국혼이라 할 국사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혼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대변되는 국백(國魄)이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언젠가 나라의 수명이 다하면 국백은 물론 국혼도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역사상에서 그러한 예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좁게는 우리 역사의 한 갈래인 발해의 역사가 고려 시기에 정리되지 않음으로써 발해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넓게는 흉노, 선비, 저강, 금나라, 원나라 등은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국혼이 없어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화가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공존하면서 스스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한낱 강자의 세계 지배를 지탱하고 획일적인 문화를 양산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진정한 세계화는 여러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타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 온 자신의 역사를 온전하게 보전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자부하듯이 타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화이불동(和而不同)의 정신이 이것입니다.

이는 인류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문화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나라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를 길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바로 저자 박은식이 꿈꾸었던 대동세계가 아닌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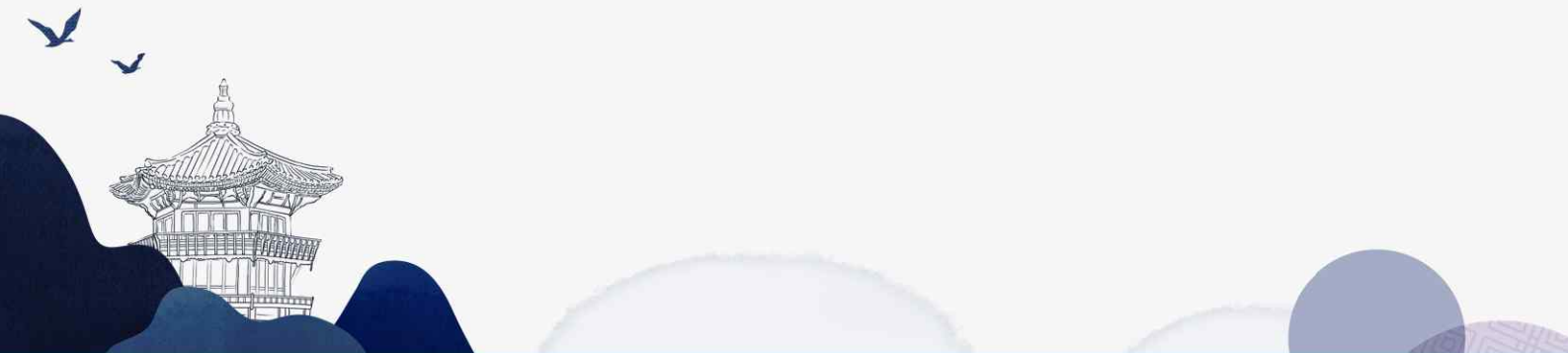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장시간 결코 재미있지 않은 강의를 열심히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근대의 고전 《한국통사》의 깊은 맛과 의미를 느끼셨다면 저로서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12

Reading Han'guk Tongsa

12-1

Perception of Space-Time

Hello, students. I'm Kim Tae Woong, one of the lecturers in this course,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on Han'guk Tongsa. This is the twelfth lecture and the theme is 'Reading Han'guk Tongsa.' This is a follow-up lecture to the last one, 'Understanding Han'guk Tongsa.'

While the last lecture covered the author's career and thoughts, writing background and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this lecture analyzes the text itself. As we have time limitation, we will explore descriptions of major events in Han'guk Tongsa (Painful History of Korea) in detail. You may as well read the rest of the book yourself.

As you know well, the process of history revolves around human activity, but the spatial basis on which it unfolds is also indispensable. In this regard, let's take a look at Bak Eun-sik's perce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space for historical development. The first chapter that opens up the main body of Han'guk Tongsa is Geographical Outline. Usually, introductory books go straight into history, but this book doesn't. That's because Bak Eun-sik thought that the territory and the history of the country were very closely related. Shin Chaeho, who was close to him, explains the relationship as follows. 수정)What is history? It is a record of the state of mental activity in which the struggles of me and others in human society develop in time and expand in space."

So, he saw time, land, and people as the three major components of history. In other words, the space where I work is the space of national history, and the space where others work is the space of world history. Therefore, when describing Joseon history, Shin Chaeho set the Joseon people as the unit of 'I' and made the state of 'I' being born, raised, and developed, as the first requirement for the description.



And he argued that it should be describ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where did the first civilization originate? Second, how did the territory increase and decrease? And third, ...” In the pre-modern era, geography is just a classifier that belongs to ‘ji (志),’ a complementary element of time.

This is why Jeong Yak-yong wrote Abanggangyeokgo (Historical Geography of Korea) earlier. He argued the need for independent national land research as follows. “In my humble view, geography is something that cannot be studied thoroughly in the world, but there is nothing in the world that we can’t help investigating more than geography.”

In this respect, it wa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geography that had only been complementary to history. This view of geography led to the modern period of reform and became more and more independent. This is because, as an objective condition for the construction of modern nation, the regional-territory commonality has great significance along with the commonality of blood ties. Bak Eun-sik, the author of Han’guk Tongsa, also emphasized the space of history, that is, the territory.

And so, as he said in his 1911 book, Mongbaegeumtaejo (Having an Audience with Emperor Taizu of Jin in a Dream), he “came to study geography to understand history properly.” He even believed that the shape of the land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haracters, and emphasized that young people should develop their will and spirit through geographical research and build the foundation of their minds.

As a result, Geographical Outline in Han’guk Tongsa specifies that Korea is a peninsula country protruding southeast of Asia, and limits the boundaries of all directions to the East Sea, the Yellow Sea, the Yalu River, the Tumen River, and the Joseon Strait. You can tell that the book represents the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of the Korean Empire as a modern state. In addition, it adopts the modern meridian to indicate the territorial position, and the east longitudinal and north latitudinal values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Bak Eun-sik could not overlook the geopolitical cond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he witnessed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In other parts of the book, where he explains the amity treaties with Western powers, he pointed out that a balance of pow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ould make Korea independent like all the weaker countries in Europe, such as Switzerland and Belgium, but it would be dangerous if any one country attempted to encroach by monopolizing the winning position. It gives us a sense of why he puts the outline of geography in the beginning.

Bak Eun-sik also placed an overview of pre-modern Korean history after the geographical outline before starting the description of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He decided that above all,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should be summarized to help domestic and overseas readers understand the book.

As the beginning of Korean history, he placed Dangun Joseon, which was the first country, the first civilization. Through this, he tried to emphasize the antiquity and uniqueness of Korean history. He also mentions the Eight Prohibitions of Jizi, pointing out the fact that state governance was achieved through law along with edification, which demonstrates the establishment of civilization, . He also refers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Three Kingdoms. In particular, he mentions the recently discovered Gwanggaeto Stele.

In addition, he emphasizes that the three kingdoms delivered civilization to Japan. He also mentions Balhae. Although Dae Joyeong is described as coming from Sumo Mohe, he seems to have wanted to emphasize that the history of Balhae is also part of the history of Korea. Also, Hunminjeongeum is used as an example of King Sejong's achievement in the Joseon Dynasty. It seems that he also wanted to talk about the uniqueness of Korean writing as well as the excellence of Hangeul.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oo, is not omitted from the description. It was the biggest war in Korean history. And he describes Admiral Yi Sun-shin's feats here. He goes on to state that due to this war, the social economy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aggravated due to the weakened national power and the decreased population, which eventually led to the national collapse.



In particular, he emphasizes that after the Manchu Invasion, the attempt of Northern Expedition was thwarted, and that national defense was neglected while literature was revered in vain. In addition, he describes that the turmoil worsened as the broader situations changed and neighboring powers fought against each other. You can tell that he finds internal factors of national collapse, but fundamentally emphasizes external aggression.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chapters of Geographical Outline and Overview of History that open up the main body of Han'guk Tongsa. We could confirm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the major space for Korean history, but Manchuria is also included. In addition, Overview of History presents Gojoseon as the beginning of Korean history, emphasizing its antiquity and uniqueness. Furthermore, the cause of the national collapse is found internally, but at the same time, it mentions the invasion of foreign powers.

In the next session, we will look at the Daewongun regime and the issue of opening, which mark the beginning of modern Korean history.





12-2 Rejecting Open-Door and Opening the Door

Hello, students. We just looked at the Geography and History that decorate the front of Han'guk Tongsa. In this session, we will begin reading Han'guk Tongsa in earnest, focusing on the major events described in it.

Before we begin, I'd like to point out that the events that we're going to deal with are those that affected the development of modern Korean history. They include major events such as the Imo Soldiers' Rebellion, the Gapsin Coup,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Gabo Reform, the Independence Association's Campaign, Japan-Korea Treaty of 1905, the Righteous Armies War, and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e Korean Empire. These events clearly show independence and modernization, aggression and resistance, which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history since then and define the lives of Koreans today.

First, let's look at the Daewongun regime, which was the prelude to modern Korean history, focusing on the refusal to open the door and the process of opening the door.

The conventional view about the Daewongun regime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so much by this book that it is said to be originated from the book. Now, let's take a look at how it portrays Daewongun's regime.

First, this is Bak Eun-sik's historical evaluation of the Daewongun regime.

He arbitrarily wielded power on everything,
Not trying to get wise men. When he took power, he hurriedly promoted civil engineering work (such as the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Palace) and embezzled, abused death penalty, and uselessly went against the current trend, thinking himself honorable with isolationism.

This is his shortcomings and his misrule.



Bak Eun-sik evaluates Daewongun's so-called isolationism and the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Palace as his maladministration. However, he also emphasizes the reform of Daewongun. That is, he acknowledges that Daewongun was a political revolutionary, that he ended Sedo politics to exclude in-laws from power, broke the powerful clan, implemented household cloth tax cloth, and abolished Seowon (private academies). As Bak Eun-sik put it, he can be seen as a 'great revolutionary in politics.'

Therefore, when evaluating the Imo Soldiers' Rebellion, he emphasizes that during the reign of Daewongun, the finances were abundant and the officials were incorrupt, so there was no civil unrest or military rebellion. This assessment contrasts with Maecheon Hwang Hyeon's attitude which ignores Daewongun's reform to criticize the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Palace and arbitrary political management,

While Hwang Hyeon was not happy with Daewongun's tax reform as a nobleman, Bak Eun-sik appreciates it, which indicates that he overcame the aristocratic view of history.

Next, let's look at the description of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Ganghwa Island, which was an epoch-making event in modern Korean history. Bak Eun-sik criticizes Daewongun's policy of refusing to open door, and he also criticizes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Ganghwa Island in 1876. Bak Eun-sik's theory of self-strengthening like this cannot be understood by the existing dichotomous way of thinking. Let's listen to him a little bit more.

If Korea opens its doors and gets along with the powers after it has obtained the ability of self-protection and self-strengthening, commerce will benefit a lot from trade and import of goods.

But if we don't have enough ability to protect ourselves, they will break through the fence and get through to our inner sides, so if we reveal only the weaknesses, it will rouse the ambition of annexation in them and paved the way for invasion.

So, this opening policy will also lead to collapse of nation. Now that we have started a commercial war with foreigners, if our industrial and commercial abilities are competitive, the resources we have will not be a subject of overnight concern, but do we have such abilities?



His criticism had long been ignored due to Gaehwa (enlightenment) movement. The argument that an unprepared opening of ports eventually leads to a national collapse was never a claim from the extreme conservatism of Wijeong Cheoksa (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 but was a historical judgment based on the reality of the time. The author himself reveals that it was an unequal treaty, presenting the full text of it.

If they had graspe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efore the opening of the port and prepared enough for the signing of the treaty, and if they had accumulated sufficient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international law while holding off Japan's request more wisely, wouldn't it have been different? However, later historians only emphasize the dichotomy between extreme conservatism and radical reformist, and say that the latter path was the best, and we need to think about what the result was.

Bak Eun-sik relays Li Hongzhang's advice that the weak countries such as Belgium and Denmark signed treaties equally with European countries and emphasizes diplomacy combined with internal solidarity and military expansion.

As Bak Eun-sik warned,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Japan-Korea Treaty of 1876 caused a lot of economic damages. As consular jurisdiction and tax exemption were allowed in Joseon, Japanese merchants rushed to penetrate into Korean economy where the domestic industries were not protected, which threatened most of the domestic merchants' commercial power.

As a result, the trade balance of Joseon gradually deteriorated as the trade increased. In 1889, imports were more than twice the amount of exports, and this led to the collapse of industries except for only a few. This is what Bak Eun-sik pointed out about the consequences of an unprepared opening.

Thus, this economic penetration of foreign powers raised domestic prices and caused discontent among the urban poor. The Imo Soldiers' Rebellion in 1882 was an expression of such discontent.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Daewongun regime, which was the prelude to modern Korean history, reading the text about the refusal to open door and opening door. Next time, we will look at self-reliance and modernization described in Han'guk Tongsa.





12-3 Self-reliance and Modernization

Last time, we looked at Korea's rejection to open-door and opening door.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the self-reliance and modernization described in Han'guk Tongsa.

As I said last time, the impact of the opening of the port was not small and the aftermath was formidable. While the Imo Soldiers' Rebellion was an explosion of the sentiment denouncing foreign influence, the Gapsin Coup was a backlash against Qing's interference in the process of suppressing the Imo Rebellion. Let's take a look at the Imo Soldiers' Rebellion and the Gapsin Coup.

The Imo Soldiers' Rebellion was a large-scale resistance movement by the lower class in Seoul in June 1882, the 19th year of King Gojong, led by low-ranking soldiers. This incident later attracted the attention of many historians in that it occurred when the Joseon government was implementing a full-fledged open-door policy with the signing of the Japan-Korea Treaty in 1876 and the U.S.-Korea Treaty in 1882.

Then, how did the author, who came to Seoul in 1882 and witnessed the Imo Soldiers' Rebellion firsthand, perceive this incident? Unlike today's historians, he finds the cause of this incident in the corruption of the Min family. This perception was not just the author's, but shared by Hwang Hyeon and Jeong Gyo at the time. Hwang Hyun criticized Queen Myeongseong for wasting the national wealth to pray for good fortune after the birth of the prince, and the corruption of her familyin's descendants, pointing out that Daewongun's savings were squandered as a result.

But what caused this revolt to escalate rapidly? As for this, the author finds the cause only in the 'revolt' itself, and does not mention its relationship with Daewongun. Rather, he explains that Daewongun sent Yi Gyeongha to cover it up, but he was kicked out, and the soldiers who caused the rebellion came to Daewongun and complained of an injustice.





He also emphasizes that Daewongun worked hard on pacification under the order of King Gojong, and that the Rebellion developed on its own, without any connection with him. In other words, Daewongun tried to cover up the Rebellion under King Gojong's order, but failed, and rather, seemed to be dragged by the rebels.

On the other hand, Jeong Gyo, who wrote Daehan Gyeonyeonsa (History of the Waning Years of the Korean Empire), describes Daewongun's attempt to seize power by using this incident. In other words, he sent soldiers to instigate the Rebellion and lead them to attack the Mins. It's the so-called secret plot theory. Currently, academia puts a lot of weight on the secret plot theory and presumes that although Daewongun did not lead the Imo Rebellion from the beginning, he was deeply involved in its development process and encouraged it to spread.

In this respect, Bak Eun-sik's argument does not follow the secret plot theory and focuses on the Rebellion's independent character. This is something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particular, the author notes that many of the figures that Daewongun trusted and led during the settling process were all killed after the rebellion, and laments that there were continuous bleeding due to rapid chang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while few people shed blood working for the people and the country as the noblemen.

At the same time, he emphasizes that due to the incident, foreign powers such as Japan and Qing began to actively interfere with the Joseon government. Qing took the lead in Joseon by suppressing the rebellion, and Japan helped the radical reformist bring about political changes to make up for this retreat. One of the strong points of Han'guk Tongsa is its vivid descriptions of historical events. The descriptions of the Gapsin Coup and the author's commentaries are not an exception. It's a lot, and it's never stale because he lived through it. Also, few events have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s well as historians as much as the Gapsin Coup. In this regard, the Gapsin Coup portrayed in this book is the highlight in that it was written by a witness of the time.



The Gapsin Coup occurred in 1884 by radical reformists such as Gim Ok-gyun and Bak Yeonghyo to promote modern reform. Although it was a 'short-lived rule' ending in three days, i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formist movement since then. However, the author named the Gapsin Coup as the 'Rebellion of the Revolutionary Party.' The name 'Gapsin' comes from the sexagenary cycle of 1884, and what does it mean to call it 'the Rebellion of the Revolutionary Party?' Isn't it called a rebellion, and not a revolution, because he thinks it has the character of rebellion while acknowledging that it is a movement of the Revolutionary Party, or the Reformist Party?

Academics generally point out that after the Imo Soldiers' Rebellion of 1882, the Qing Dynasty interfere more with Joseon's internal affairs, escalating the conflict between the Dongdo-seogi (Eastern ways and Western frames) faction who pushed for reform based on the Qing's Self-Strengthening Movement and the radical reformists who tried to follow the example of Japan's Meiji Restoration. In particular,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Min's regime and the radical reformists over the national fiscal crisis reached its peak.

But the author, as a person who lived at this time, focuses on the outbreak itself. First of all, he finds the background of the coup in East Asia's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Joseon and the dynamics of domestic political forces.

Especially, while denying the role of Japan as a leading force, he emphasizes that Gim Ok-gyun and others, while leading the coup, requested support from the Meiji government of Japan to exclude the Qing Dynasty. In short, Gim Ok-gyun led the coup and Japan cooperat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Japanese instigation theory claimed by Japanese scholars, is preposterous.





Meanwhile, the author described the outbreak and development of the Coup very vividly. In particular, the description of the injuries of the participants at the completion ceremony of the Central Postal Administration, the official name for the Postal Administration, is striking. What is especially important here is whether King Gojong approved Gim Ok-gyun's request for the Japanese minister to escort the king, which later became the target of criticism. The Japanese guards were only one company, but bringing Japanese troops in the royal court was a matter of victory or defeat for the participants of the coup.

That's why later historical descriptions of King Gojong's personal letter vary. According to Gapsin Ilok (Diary of the 1884 Coup), which Gim Ok-gyun left after the coup, King Gojong personally wrote, "Minister of Japan shall come and escort me (日本公使來護朕)," with a pencil on a white paper at Gim Ok-gyun's request.

But, this statement is false. As Takezoe Shinichiro, the Japanese minister at the time, claimed, the so-called personal letter just said "Japanese minister, come to protect (日使來衛)." The fact that Gim Ok-gyun, the leader of the Coup, forgot this simple four-letter phrase and remembered it as a seven-letter one clearly shows that he himself fabricated the facts to justify what he did.

As Bak Eun-sik points out, he tried to draw in Japanese troops, but when King Gojong refused, they wrote the four letters with a pencil on a white paper and asked the Japanese minister for troops. Bak Eun-sik's description is more reliable in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description of Jeong Gyo's Daehan Gyeonyeonsa and the result from the Joseon government's interrogation of Japan at the time.

In addition, the vivid description of the development of events is very accurate even compared to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earch of today. This is evidence that although Bak Eun-sik was not at the scene, he heard about it from those who knew the circumstances well, or searched for relevant historical data.



The Gapsin Coup was an attempt by Gim Ok-gyun faction to take control of the political situation by drawing in Japanese troops with illegal means. Like other existing history books, Han'guk Tongsa has the author's evaluation of the Gapsin Coup, as a historian in a separate annotation, which is not common in modern history books.

First, the coup faction's excessive dependence on Japan clearly shows the character of the Gapsin Coup. The author conveys this point through the mouth of a friend who knew the situation well, and at the same time reveals his own perception of the Gapsin Coup. That is, he argues that they were used without knowing Japan's true intentions, saying, "Our progress is disadvantageous to them, so, if they see our country's momentum to advance, will they help us or try to break it down by all means?"

Also, describing Gim Ok-gyun's and Bak Yeong-hyo's lives in exile, he plainly reports Japan's betrayal. Of course, the author acknowledges that the leaders of the coup were revolutionaries. However, he thinks that their inexperience and lack of study led them to hasty action, and eventually, to failure. He emphasizes that they should have won the hearts of the people through enlightenment movement first rather than rushed to the radical coup.

In short, he criticizes that they relied on other people's power, when revolutionists should pushed for it on his own despite the extreme difficulties in the world. Thus, he concludes, hasty action, without knowing the situation of the world, without profound enthusiasm and study, and only with a rough and intrepid mettle, is bound to fail.

By the way, it is noteworthy that while describing the development of the Gapsin Coup in detail, the book does not contain the reform plan for state administration promulgated by the coup faction, unlike Jeong Gyo's Daehan Gyeonyeonsa. This is because the author did not meet the people who led the coup in person. And this is a disappointing part of the author's description of the Gapsin Coup.

Finally, what we should not miss in the author's commentary is that he conveys the atmosphere of the literati of Japan, who admired Gim Ok-gyun. This seems to be included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Gapsin Coup while revealing that its leader was Gim Ok-gyun.



In 1894, the largest and most organized peasant war in our history took place on a national scale, starting in the northwest part of Jeolla-do. It was the so-called Donghak Uprising. This name implies that it was a kind of civil rebellion, which reveals the author considered it as a rebellion led by Donghak.

The main agent of the rebellion was peasants, who raised issues of land, taxes, status, and foreign merchants' economic penetration, which were urgent problems of that time, and demanded reform. They set up jipgangso (local directorates) and implemented the reform themselves.

Therefore, Donghak Uprising was a huge shock to many literati as well as the government officials at that time. Bak Eun-sik also witnessed Donghak Uprising and described it on many pages. It was the biggest event in modern Korean history, which finalized the stream of history.

The author also points out that the Donghak Uprising started the nationwide rebellions in Korea and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In addition, he was in Seoul during the Uprising and tried to make his voice heard, closely watching the government's actions.

Therefore, he carefully describes the origins and ideas of Donghak (Eastern Learning), which are deeply related to the rebellion, before describing the rebellion itself. First, he sees Donghak and Donghak Uprising in close connection. So he find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Donghak's popularity in the influence of Jeonggamrok (Prophecies of Jeong), the confrontation of aristocrats, commoners, and lowborns, and the tyranny of local strongmen, as well as the corruption and exploitation of government officials. He goes on to point out that Donghak took advantage of this situation and diffuses in all directions, advocating the killing of corrupt officials, the relief of people's livelihoods, the eradication of evil criminals, and the support of the nation.



The development of Donghak Uprising is largely divided into two stages. The first is the stage of Gobu revolt, and the second is the stage where civil revolts developed into Donghak Uprising due to the suppression of Yi Yongtae. Especially, the author focuses on the second stage, and although it was not specifically mentioned, he thinks the beginning was the meeting in Baeksan where Jeon Bongjun, Gim Gaenam, and Son Hwajung met.

This idea was widely accepted for long, but many researchers, including Shin Yongha, have discovered historical evidences and recently confirmed that Mujang in Gochang-gun, Jeollabuk-do, was the first place of uprising, and named the event Mujang Uprising.

This error was due to the fact that information about Donghak Uprising was not properly transmit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at that time. In addition, today the Uprising process i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Gobu Peasant Uprising, the First Donghak Peasant War, the Jipgangso phase, and the Second Donghak Peasant Wa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one of the reasons Japan intervened in Korean affairs was the murder of Gim Ok-gyun . The author points out that it was one of the causes of the international breakdown, emphasizing that Japanese civilians felt resentment and tried to revenge with force. However, as already mentioned in the explanation of the Gapsin Coup, it was a political ac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far-right intellectuals, who wanted to create a cause for the Sino-Japanese War.

Now, we can learn about how Donghak was evaluated by the literati of the time through the author's perception. The author criticizes the superstitious nature of Donghak. In particular, he points out that the Donghak party contained the nature of political thought and revolution, but came from an ignorant group.

At the same time, he admits that the traditional class idea, which had been strict and cruel, collapsed because of this, so you can say it did pioneering work of reform. Furthermore, he argues that if armies like this enter Seoul and initiate reforms, foreign interference will not be possible, so the blood of the Western revolution will be seen again on the eastern peninsula of Asia.



He thinks that as for the Gabo Donghak Uprising, the fault lied in the government, and criticizes the government for blaming peasants and asking for reinforcement from the Qing Dynasty. Moreover, when he heard that the government was going to ask the Qing Dynasty for reinforcement, he actually tried to stop the authorities from requesting reinfor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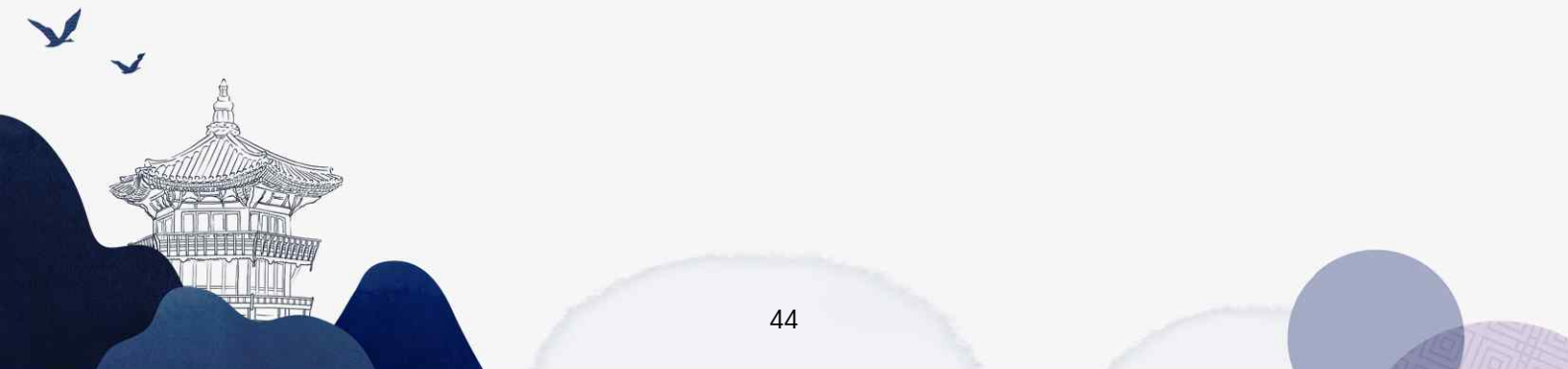
According to him, first, begging other countries to save their lives is a great shame for the country, and second, he was worried that the country would not be safe if the two countries Qing and Japan sent troops while the Tianjin Treaty was still effective. And he couldn't help but lamenting that his prediction was correct. This is where we can get a glimpse of an activist intellectual, rather than a historian, striving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time.

Another thing to note is that the author did not overlook the Sino-Japanese War. He briefly describes the situation of the Sino-Japanese War and defines it as the defeat of Li Hongzhang, who argued for diplomacy against the meticulous strategy of Japanese military.

His description seems to have been based on Zhong Dong Zhanji (Record of the Sino-Japanese War), rather than the primary historical sources of the time. Perhaps that's why he does not clearly show which country declared war and who initiated the surprise attack in the Sino-Japanese War.

So far, we have looked at Donghak Uprising and the Sino-Japanese War. While Donghak Uprising was a revolutionary movement to solve the problems of Joseon society on its own, the latter was a fierce battle between foreign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spect, these two events were a turning point for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Next time, we will look at the modern reforms described in Han'guk Tongsa.





12-4 Modern Reforms

Hello, students. Last time, we looked at Korea's attempts for self-reliance and modernization in Han'guk Tongsa. This time, let's take a look at the description of modern reforms.

Donghak Uprising and the Sino-Japanese War left a huge mark on the Joseon government. Now let's look at the descriptions of the Gabo Reform, Agwan Pachon (King Gojong's internal exile to the Russian leg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Russo-Japanese War that led to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The Gabo Reform refers to a series of reformist movements promoted by the Joseon government from July 1894 to February 1896. Although the reform was apparently triggered by Japan's invasion, it was actually in the same vein with the popular reformist movement, including Donghak Uprising. During this period, the tax and financial systems were redressed and the class system was legally abolished. In addition, the court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modern schools was laid.

The author also focuses on these modern reforms and introduces in detail the bills decided by Gun'guk Gimucheo (Deliberative Council). Gun'guk Gimucheo was a kind of emergency organization set up under the Japanese coercion, but because of Japan's commitment to the Sino-Japanese War, it carried out reforms independently, with less Japanese interference, reflecting to some extent the needs of the government, the Gaehwa Party, or peasants. And the result was the bills of Gun'guk Gimucheo.

Therefore, the author focuses on the reform bills decided by Gun'guk Gimucheo in the early stage and introduces their directions and achievements in detail. These include tax and monetary reforms, the abolition of the class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official selection system.



Among them, the most notable was the first bill approved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which proclaimed that Joseon was separated from the Chinese ruling order, saying, "from now on, the year shall be counted based on the foundation of our country in domestic and foreign official documents." Until then, Joseon had used the Chinese era name in its official documents, and now it discarded the practice, showing Joseon government's intention to get away from the Sino-centric order.

Moreover, the timing of the resolution of this bill was right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dicating Joseon government's willingness to develop into a modern state on par with Qing. The second bill also enabled Joseon to make revisions to unequal treaties such as the Sino-Korean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and to send ministers to Western countries again by restoring the rights that had been thwarted by Yuan Shikai's interference.

In addition to these reforms on foreign relations, they decided on important reform bills concerning every aspect of domestic affair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refore, the readers can identify the modernity of the Gabo Reform through these bills. We can tell that the author also thinks highly of it to see that he titled this section 'the new politics of the reformation of our country,' although he does not presents his specific evaluation.

What's especially noteworthy in this section is that he discusses Silhak (Practical Learning) in the commentary. This is in line with the criticisms of Jeong Yak-yong, who had been a role model of the author from an early age, and i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contemporary literati such as sanrim (rustic literati) or yuil (talented but jobless scholars), who paid attention only to Neo-Confucianism and stayed away from practical knowledge in finance, military, punishment, and diplomacy.

Especially, while harshly criticizing the negative effects of Neo-Confucianism of the past and the consequent evils of bungdang (political factions), he pays attention to the reform plans of Ban'gye Yu Hyeongwon, Dasan Jeong Yak-yong, and Yeonam Bak Jiwon, calling their thoughts grand politics.



Furthermore, he emphasizes that their reformist ideas criticized the evils of existing Neo-Confucianism and faction politics, and became the basis for developing practical and utilitarian studies. This is the discovery of Silhak. As is well known, Silhak planned to reform the existing land and class systems to ensure economic and social growth of peasants and low-class people, and to create a system that could enhance the national prosperity

Therefore, hi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the Gabo Reform like this provide a basis for overcoming the theory of heteronomy, which claims that it was conducted under the Japanese interference and leadership. Today, academia of Korea has overcome this theory of heteronomy in the Japanese academic community and clarified that although the autonomy of reformists was in a precarious situation due to Japan's political and military interference, the Gabo reform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state by following the tradition of reformist thoughts and accepting most of the peasants' demands.

Meanwhile, the murder of Queen Myeongseong during the reform is still a hot topic that has not yet been fully resolved today. That's because Japan systematically covered it up. Nevertheless, the author was able to write the full story of the case in detail, because he studied the reports of Gwon Jaehyeong and Greathouse, which came out during the investigation of the assassin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right after Agwan Pacheon, reorganizing them and meticulously reconstructing the case.

The so-called 'Official Report on the Incident' was prepared and reported by Gwon Jaehyeong, and the attached letter written by Greathouse, the advisor of the Ministry of Law, confirms that the contents of the Report are accurate. These data are the rep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rebutting 'the Conclusion of Preliminaries on Joseon Case' issued by the Hiroshima District Trial Court on January 20, 1896, which shows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On February 11, 1896, shortly after Agwan Pacheon, King Gojong ordered a 'complete and fair investigation' of the 'incident,' and accordingly, Gwon Jaehyeong, the Vice-minister of Ministry of Law and judge of the High Court, wrote it and reported it to Yi Beomjin,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chief judge of the High Court. The Ministry of Law tried to publish the report in the official gazette but failed due to the pressure from the Japanese minister who had known about it beforehand.

So, they published it in the March issue of the Korean Repository in 1896, a magazine published by foreigners in Korea, and ordered Seo Jae-pil of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to publish it as 300 booklets in Hangeul. The government's move appears to have intended to refute the Conclusion of Preliminaries in Hiroshima, Japan, based on facts, as well as to make it known to foreigners to accuse Japan of its atrocities.

And the author seems to have obtained and actively utilized these documents. In addition, he attaches the Conclusion of Preliminaries in local court of Hiroshima. In particular, the author provides the original full text unlike those in other sections, to accurately inform Korean readers while identifying international subtleties through the original source.

In the meantime, many Confucian scholars and peasants formed righteous armies in protest against the assassination of Queen Myeongseong. The government and Japan sent troops to suppress them. And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groups close to Western diplomats, including the Jeongdong Club, brought Gojong and the Crown Prince to the Russian legation, and the Gabo Reformist cabinet collapsed. It was the so-called Agwan Pacheon.

In February 1896, when King Gojong moved to the Russian legation, the Gim Hongjip Cabinet collapsed. When the power between Russia and Japan was balanced as a result, the new government wanted to embrace modern civilization to enrich the country, and became interested in enlightening the public as well. First of all, Seo Jae-pil, who was well-versed in Western culture, was appointed as an advisor of Jungchu-won (Central Advisory Council). Seo Jae-pil and other pro-enlightenment intellectuals also took this opportunity to organize the Independence Club.



The Independence Club involved a larg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along with pro-enlightenment intellectuals. The general public also raised funds for the Club or actively participated in lectures. The publication of Dongnip Sinmun (the Independence) and the construction of Dongnipmun (Independence Gate) were the representative fruits achieved by the government, Independence Club, and the people.

Meanwhile, when King Gojong returned from the Russian legation to Gyeongun'gung Palace, an atmosphere for the status of the country to be raised was created, and appeals were made to use the title of emperor. The government-licensed merchants also joined these appeals. In response, King Gojong changed the name of the country into Daehan Jeguk (the Korean Empire) and set the name of the era as Gwangmu, holding an imperial enthronement ceremony to show the strength of an independent country.

The name of the state, Daehan, comes from 'Samhan (Three Han)' meaning a country that embraces Three Han as one, and Gwangmu is from the name of Gwangmuje, the emperor Guangwe of the Later Han Dynasty of China, implying the determination to make the country prosper. Thus, on October 3, 1897, King Gojong accepted the requests of his servants and the people after declining several times. On the 12th, he wore the yellow dragon robe and performed the imperial enthronement ceremony at Hwan'gudan Altar.

But the author focused on the Independence Club rather than the section title, the Korean Empire itself, while describing these fluctuations of political situation. That's because he thought that the government of Korean Empire relied on foreign powers to suppress the Club and try to maintain its power, while the Independence Club was carrying out patriotic and civil rights movements. He also accuses Japan of supporting the government's suppression of the Independence club although it promised to support the Club at first.

He did not forget to criticize the Independence Club, though. He points out that the Club was so hasty to innovate politics and rushed to succeed, that they got into conflicts with the government. Moreover, he criticizes the Club's foundation of knowledge was shallow and rough, and they rushed about furiously in vanity, unable to deal with the situations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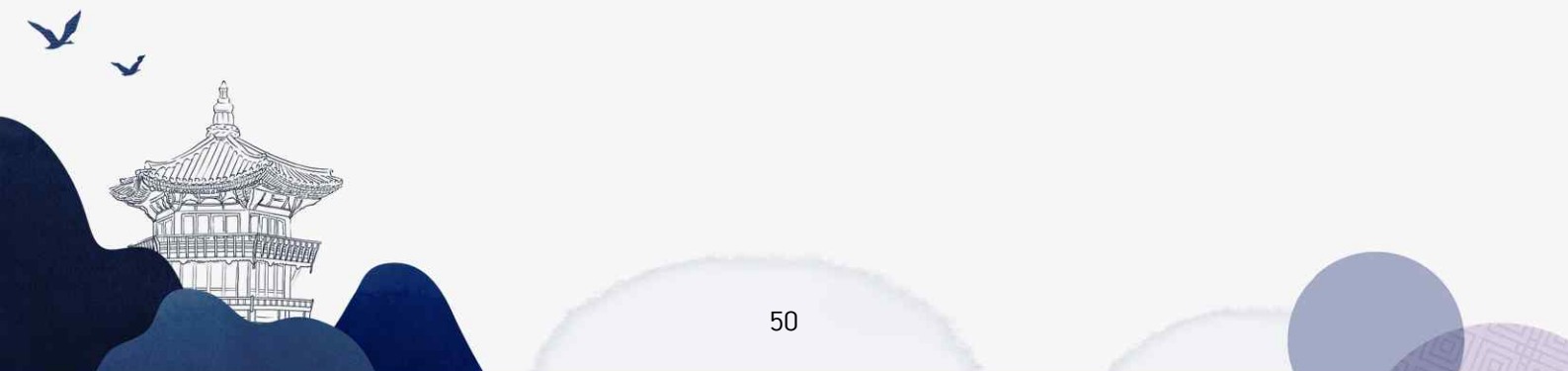
His points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Independence Club once again. In short, the direction of reform that the author thought was to increase the power of the people so that they could be self-reliable.

However, Korean efforts were shattered by the Russo-Japanese War, provoked by Japan. The author also described the war situation in detail, acknowledging the critical impact of the Russo-Japanese War on modern Korean history. It presents various battlefields on land and in the sea, and you might say it should be called a war history book. And he shows the process of Japan defeating Russia and gaining the Korean Empire illegally and forcefully under the connivance of Western powers.

In particular, he describes the atrocities of the Japanese military stealing the territory of the Korean Empire and mobilizing Korean people by force during the battle. At that time, there was even a rumor among Koreans that when they were mobilized by the Japanese military, they would be cannon fodder. If they refused to be mobilized, the Japanese military called them Russian spies and killed them.

The author accused the Japanese military of occupying the land around Yongsan as military use, destroying houses, damaging farmlands, and even digging up tombs of civilians. And in order to provide objective proof of this atrocity, he cites the travelogue and writings of the Westerners. He wanted to tell what the Russo-Japanese War meant to Koreans.

Next time, we will look at the Japanese invasion and Korean resistance.





12-5 Japanese Invasion and Korean Resistance

Hello, students. Last time, we looked at the modern reform described in Han'guk Tongsa. This time, let's take a look at the Japanese invasion and Korean resistance.

First of all, let's look at the process of Japanese invasion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resistance of Koreans against it through Han'guk Tongsa.

When Japan won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it started a campaign to make the Korean Empire its protectorate. Thus, on November 18 of the same year, they surrounded the palace in layers with fully armed troops, threatened Emperor Gojong and his ministers to sign the Japan-Korea Treaty, and made the Korean Empire a 'protectorate.'

The Japan-Korea Treaty of 1905 was simply a complete deprivation of Korea's diplomatic rights, which prevented Korea from making treaties or promises with any other country without the approval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Treaty stipulated that one Japanese resident-general stayed in Korea to manage only Korea's diplomacy. However, the resident-general not only managed diplomacy, but actually oversaw all of Korea's internal affairs.

In describing the Japan-Korea Treaty, the author used the article, 'Full Story behind the Conclusion of the Eulsa Treaty,' of the the Hwangseong Sinmun (the Capital Gazette), published on November 20, 1905, to illustrate the threat of Japan and forced signing, focusing on elaborating the strong opposition of Emperor Gojong and some ministers. He emphasizes that the treaty was forcibly signed under Japanese threats, highlighting the logical argument and valiant attitude of Prime Minister Han Gyuseol, who opposed Ito Hirobumi until the end.





It is testified that during the process, the Japanese military ran out and took away the seal and signed the treaty with it, which can be used to argue for the invalidity of the treaty in that it was done with a threat to the head of the state. In particular, by describing every move of each minister, he intends to leave a detailed historical record of the beginning of Five Eulsa Traitors.

This description could not be possible without the testimony of those who attended the meeting. Given that Japan's censorship was very severe, the author must have collected aggressively the messages from the ministers who had been there. Therefore, the publication of Han'guk Tongsa cried out the illegality of Japan-Korea Treaty of 1905, and since then, researchers of the treaty have thoroughly reviewed the book, which serves as a clue to its illegality.

As a result, it turns out that the treaty did not go through any of the three stages of authorization, signing, and ratification, which are normally required to validate a treaty. First of all, the treaty is not valid because Emperor Gojong did not delegate the right to sign the treaty to Bak Jesun, Foreign Affairs Minister.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Empire did not stamp it, but Japan took away the official seal of Foreign Affairs Minister with military force.

Finally, it was not ratified because Emperor Gojong refused to approve the treaty until the end. Therefore, the media of the time called it 'neugyak,' an unwilling treaty. Since then, Emperor Gojong constantly raised objections to the Treaty and tried to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form them that the treaty was invalid. Also, in 1906, Francis Rey, a prominent French international law scholar, had already argued that Japan-Korea Treaty of 1905 was invalid.

Nevertheless, in 1905, with Japan's coercion of the Treaty and the connivance and support of Western powers, the Korean Empire had to give Japan control over internal affairs as well as diplomatic rights. In response, Koreans developed the Enlightenment and the Anti-Japanese righteous army war.



First of all, the royal family, including Emperor Gojong, appeal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illegality of the treaty. The Hague Secret Emissary Affair was one of those efforts.

Russian Tsar Nicholas II, who advocated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s, sent an invitation to Emperor Gojong in April 1906 in absolute secrecy, which triggered the affair. Gojong clandestinely tried to send emissaries to the conference scheduled in August of that year to infor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Japanese invasion and invalidity of Japan-Korea Treaty of 1905, but the meeting was canceled because some of the powers decided not to attend.

The next year, in June 1907, the conference was rescheduled, and he attempted to dispatch the emissaries again. Although the emissaries' activities were thwarted by Japan's sabotage, it was a good demonstration of the Korean Empire government's commitment to protecting national sovereignty to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And this news was published in the July 21 issue of the Daehan Maeil Sinbo (Korean Daily News) in 1907, showing a faint light of hope to many people in Korea.

This is why the author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is case and describes the behind story in detail. However, unlike in other parts, the author expresses his views of history and the world first.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he was keenly aware of the harsh or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powers' pursuit of self-interest surrounding the Hague Secret Emissary Affair. This shows that he reached a point where he could observ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bjectively.

So, he suggests th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itself was a product of bargaining and compromise between imperialist nations, and points out that Korea was misled by the word peace and sent the emissaries. He already expressed this idea in his 1911 book, Mongbaegeumtaejo (Having an Audience with Emperor Taizu of Jin in a Dream).



"The so-called peace trial is a negoti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which is nothing more than a tool of the powerful and the victors. The weak and the inferior have no place to complain of the pain and injustice."

His perception like this is evident in other parts describing the signing of treaties with the Western powers. That is, he understands that the so-called treaty is "all just some pieces of writing on paper." In the end, as the author said, "it only hastens the collapse of the country to believe in the sweet words of foreigners in vain without the ability of self-strengthening and self-reliance."

The author goes on to describe the Righteous Armies War, in which soldiers of the Korean Empire participated after the army was disbanded. The joining of soldiers completely changed the nature of the war. By 1907, the righteous armies sprea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including Jiandao and Primorsky Krai. This is because the participation of the disbanded soldiers improved their combat capabilities, including weapons, tactics, discipline, and military training.

Over time, the soldiers were forced to cross the border again to Manchuria due to Japanese military pressure. And here they built the basis of the independence forces. For example, most of the instructors at the Military School of the New Rising had been officers of the Korean Empire Army. Their training of the independence forces was the foundation for the victories of the Battle of Fengwudong and Qingshanli later.

Thus, the author later defined the disbanded soldiers who occupied the majority of independence forces along with the Confucian scholars, in the Bloody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s follows. "The Righteous army is the civilian army. They immediately volunteer in loyalty and join the army without waiting for the royal order when the country is in an emergency, full of enmity."





Ahn Junggeun's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on October 26, 1909 was a huge shock to the people of East Asia. In particular, when imperial Japan broke its promise and devoured the Korean Peninsula, blatantly revealing its ambition to take over Manchuria, Koreans and the Chinese, who were helplessly watching this situation, cheered at the assassination.

Therefore, many Korean intellectuals published biographies containing Ahn Junggeun's life and ideas to keep this incident in history. Among them, Ahn Junggeun-jeon (Biography of Ahn Junggeun), published in 1914 by Bak Eun-sik, the author of this book, is the most representative biography of Ahn Junggeun.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grasp hi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Ahn Junggeun,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introduction of Ahn Junggeun-jeon.

Based on what he did, Ahn Junggeun can be said to be a patriot who saved the country by sacrificing himself, or a martyr who avenged for Korea.

However, I think this is not enough to explain Ahn Junggeun in full. Ahn Junggeun is a person who represented peace on his own with world-class insight.

The reason why he killed Ito was that he hoped for world peace, recognized Ito as the enemy of peace, and thought that disaster could not be prevented unless the monster was removed.

It is the supreme happiness to throw away an individual's life and achieve world peace. This resulted from conflicting principles not being able to coexist.

In this way, Ahn Junggeun has world-class insight and will claim himself as the representative of peace. How can it be said to be the revenge only for Korea?

Here, you can guess why the author described Ahn Junggeun's life. Above all, he focuses not on the fact that Ahn Junggeun killed Ito, but on why he had no choice but to shoot him.

In other words, he emphasizes that shooting Ito was not triggered by an individual terrorist's impulsive ambition, but rather resulted from the strateg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learned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Enlightenment and the righteous armies campaigns and his long-planned Eastern Peace theory.



Therefore, in this article, which is a summary of Ahn Junggeun-jeon, the author focuses on Ahn Junggeun as a thinker who tried to practice Eastern peace with himself rather than as a patriot or a martyr. Thus, it begins with the description of why Ito went to Harbin. And it goes on to describe Ahn Junggeun's motive for the shooting. In short, the main structure of this article is a contrast between Ito's so-called Eastern Peace Theory and Ahn Junggeun's Eastern Peace Theory.

Ahn Junggeun began to criticize Japan's Eastern Peace theory. The reason he shot Ito was because he was a dangerous man who broke the peace of the East and by punishing him, he thought he could urge Japan to return to the right path for the peace of the East.

Furthermore, Ahn Junggeun believes that all of these were actually arbitrary actions by Ito against the will of the Japanese emperor. This judgment was also based on his ignorance of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but Ahn Junggeun seems to have chosen Ito, who was at the forefront of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Korean Empire at the time, in order to make his goal clear. Therefore, Bak Eun-sik describes Ahn Junggeun's growth and life in connection with his theory of Eastern Peace.

In particular, he emphasizes that Ahn Junggeun's Eastern Peace Theory influenced some Japanese as well as Koreans and the Chinese, and they admired him and tried to get his handwriting. The picture shows Ahn Junggeun's autograph. It says, "To preserve the East, we must first change the political strategy. What's the point of regretting if the time passes and we miss the opportunity?"

In short, history wanted to remember him. By describing Ahn Junggeun's righteous protest in detail in his book, Bak Eun-sik might have tried to inform the oppress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ns, that Ahn Junggeun's gunfire was a cry of oppressed people thrown at modern Japanese history, which was bent on imperialism, with the lofty ideal of Eastern Peace.



Imperial Japan annexed the Korean Empire on August 29, 1910. We also call it 'Gyeongsul gukchi (the shame of Gyeongsul)' because it's a disgrace of the country that happened in 1910, the year of Gyeongsul. The author recounts the process of Japan's annexation of the Korean Empire in detail and describes Japan's arguments for annexation and the treacherous activities of Iljinhoe (Unity and Progress Society). Especially, he mentions one by one the meticulous plans of Japan for annexation, which had been prepared early on.

This is directly refuting the claim of the high-ranking Japanese officials who frequently argued that Japan had not intended to merge Korea, and that based on Iljinhoe's merger request, it was the result of voluntary requests from Koreans.

On the other hand, the author's main point is to reveal the illegality of the treaty during the annexation process, and though he does not pointed out one by one based on international law, he clearly states that Emperor Sunjong himself refused to issue the imperial edict. This shows the lack of ratification. Of course, since Bak Eun-sik was not at the scene in person, there might be misunderstandings and exaggerations about the scene where the imperial edict was announced.

For example, he relates the moment when Yun Deogyong wrote the imperial edict to surrender the country and asked the emperor to seal it, and the emperor sobbed and refused to allow it. Yun Deogyong secretly took the seal after the emperor entered the bedroom and handed it to Yi Wanyong.

However, this is based on rumors, and in fact, it is an inaccurate description because the imperial seal had been handed over to the Residency-General since the Japan-Korea Treaty of 1907. It is also not correct that Yun Deogyong wrote the imperial edict. It was also written by the Residency-General. In this regard, when reading this book,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limitations of the author.



However, despite these errors, the description makes us infer that Emperor Sunjong did not readily give in to Japan's demand. In particular,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there is no name of the emperor, or imperial sign manual, which should be in the last part of the imperial edict announcing the annexation.

In this respect, despite the errors, Bak Eun-sik's description provided clues for later researchers to question and study the annexation treaty. Although incomplete, efforts of a historian to leave the truth under difficult conditions shed light and provided clues for future generations.

In his conclusion, the author once again reminds readers of the urgency of writing Han'guk Tongsa. He argues that if we do not lose gukhon (the soul of the nation) represented by the religion, the study, the language, the writing, and the history of the country, we can keep our country, and even if we lose the country, historians should leave a national history so that we can someday rely on the national soul to restore the country.

On the contrary, if the national soul is not preserved, no matter how strong gukbaek (the national spirit) might be, which is represented by economic and military power, the country's life will someday reach its end and both the soul and the spirit of the nation will disappear.

And the author lists examples of such countries in history. In the near, the history of Balhae, a branch of our history, was not recapitulated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Balhae has disappeared forever on Earth. In the far, Xiongnu, Xianbei, Di and Qiang people, Jin, and Yuan Dynasty, despite their strong military and economic power, eventually disappeared due to lack of national s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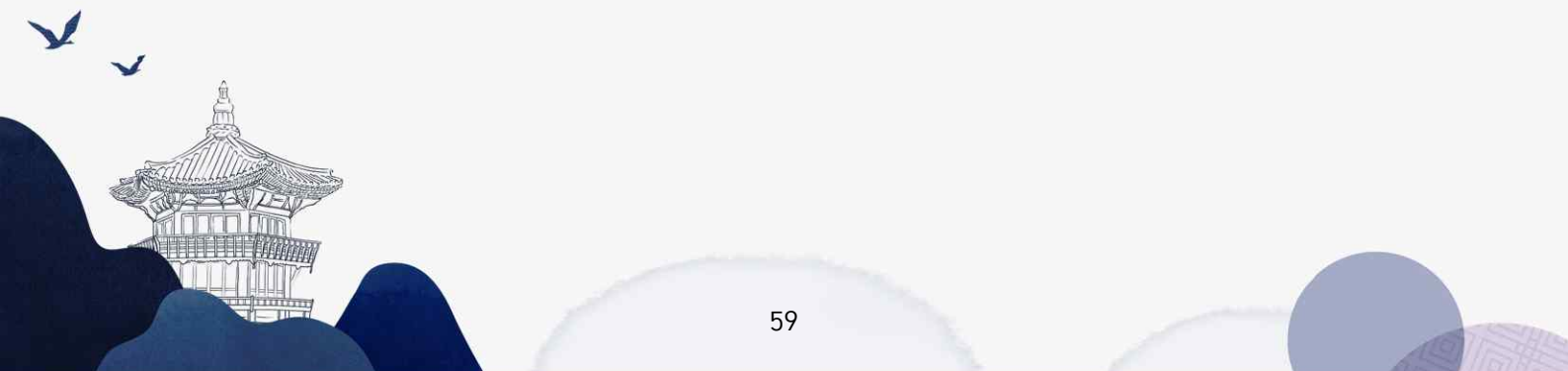
Today we are living in an era of globalization. But if such globalization does not move toward preserving and developing its own history and culture through the coexistence of countries and ethnic groups, it will further fuel conflicts and disputes by supporting the power's domination of the world and producing a uniform culture. In this regard, true globalization for peace and coexistence should move toward respecting and protecting the diverse lives of people in different reg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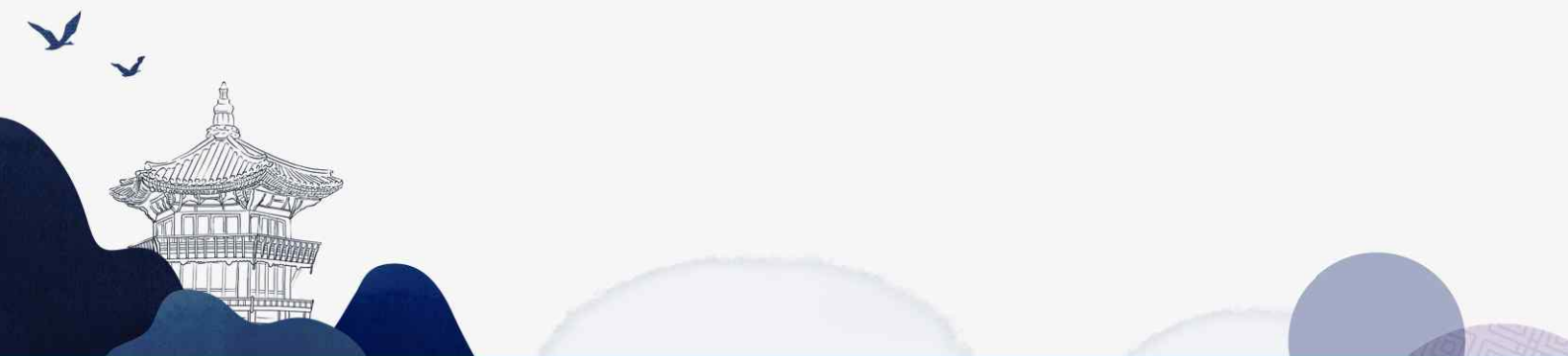
In order to achieve this, not only must we respect life and create a foundation for coexistence with other cultures, but by fully preserving one's history that has supported this, we must actively recognize the existence of others like our own, and seek a direction to coexist. This is the spirit of hwai-budong (harmonious but different).

This means that as a member of the entire human race, we must enhance our cultural capabilities, and at the same time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humanity with a holistic view that encompasses other countries. I think this is the Daedong (Great Community) that Bak Eun-sik dreamed of.

Thank you for listening to a lecture that is never fun for a long time. If you learned something thoughtful and meaningful of the modern classic Han'guk Tongsa through this lecture, I would be very happy. Thank you again, and this is the end of the lecture now.



讲义





第 12 周

解读《韩国痛史》

12-1

对于时间和空间认识的解读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韩国痛史》课程主讲的金泰雄。这节课是我们的第十二节课，以“解读《韩国痛史》”为主题。我们这节课的内容是上一节课“《韩国痛史》的理解”的后续篇。

在上次的课程中，我们学习了作者的生平和思想，创作的背景和结构特征，这次课程我们将分析这部作品的文本内容。由于时间有限，我们这节课只详细地学习《韩国通史》中主要事件的叙述内容。除了这部分内容之外，大家如果能自己直接阅读其他部分的内容会更好。

正如大家所知道的那样，历史的发展过程，是以人类活动为中心的，不能忽视这一活动开展的空间基础。由此可见，我们需要探究朴殷植展开历史叙述的空间背景，他对于朝鲜半岛这一空间具有怎样的认识。

《韩国通史》的正文最先始于地理概要，即地理部分的主要内容。一般来说，在概说书类型的作品中都会出现历史故事，但是在这部作品中并没有出现。因为作者认为国家的领土-国土和自己国家的历史-国史有着非常密切的关系。与他想法相似的申采浩先生，对于这一关系做了以下的说明。

“所谓历史，就是对于身处人类社会的我和其他人的斗争在时间发展和空间扩张的过程中，产生的心理活动的记录。”

因此，他认为时，地，人是构成历史的三大要素。即，我活动的空间是国史的空间，其他人活动的空间是万国史的空间。所以，申采浩想要叙述朝鲜史，以“我”作为朝鲜民族的叙述单位，把“我”的出生，成长和发展状态相关的内容放在内容叙述中的首位。

所以他主张，“第一，最初的文明起源于哪里；第二，历代疆土规模是如何扩张或缩小的，第三，…”，以这个顺序进行叙述。前近代，地理是一个分类词，在分类词中属于“志”，并不具备时间的补充要素。



早年，丁若鏞撰写《我邦疆域考》的理由也有提及。从主体身份，到国土研究的必要性，他对于这部分的内容主张如下。

“臣也觉得全天下地理是门无法研究清楚的学问，看起来全天下没有比地理更难弄清楚的东西了。”

由此可见，地理对于历史的辅助作用，和地志的性质有所不同。这种地理观在近代改革时期中得以延续，渐渐表现出独立性。因为作为民族形成的客观条件之一，共同的地域-领土和共同的血缘一样，有着重要的意义。《韩国通史》作者朴殷植也很重视作为历史舞台的空间，也被称之为疆域。

所以，他在1911年编著的《梦拜金太祖》中指出，“为了完整地了解历史，所以要进行地理研究”。甚至，他认为土地的情况会对人物的成长有很大的影响，通过地理研究，可以培养青年的志向与气概，坚定内心的方向，从而更从容地前行。

所以，他在《韩国通史》地理概要部分的内容中表明，韩国是在亚洲东南部比较具有代表性的半岛国家，周围的边界分别为东海，黄海，鸭绿江，图们江和朝鲜海峡。这是近代国家的领土分界，而大韩帝国的领土主权也原封不动地接受了这样的划分形式。而且，使用了近代一直适用的子午线，通过东经和北纬的度数，来标识领土位置。

特别是目击了中日甲午战争，日俄战争这点，也不能忽视朝鲜半岛的地缘政治学的条件。作者在开头部分，提到和列强的修好通商的其他项目中指出，包围朝鲜半岛的势力达到平衡的状态。虽然韩国也可以像欧洲的弱小国家一样独立，例如瑞士，比利时等，但如果有其中一个国家试图蚕食他国并想要独自取得胜利，那其他国家就会陷入危险之中。由此可见，作者为什么会把地理概要的内容放在开头。

并且，朴殷植在谈论韩国当代史之前，在叙述完地理概要后，接着就叙述了韩国近代之前的历史概要。把韩国史的起源和发展过程，按照不同的信息流进行整理，有助于国内和国外的读者对《韩国通史》这部作品的理解。

韩国史的起步发展相关的内容，聚焦于檀君朝鲜，其建设了最初的国家 and 最初的文明。想要通过这样的方式，强调韩国史的悠久性和独立性。并且，提到了箕子的8条禁令，通过法律实现了国家统治与教化，强调了文明的形成。并且，作者提到了三国的成长和发展过程。特别提到了最近发现的广开土大王碑。



还有，强调了三国时期，把文物送到了日本。并且，还提到了渤海。尽管书中说大祚荣出自“粟末靺鞨”，但从叙述了渤海史这一点来看，作者是想强调渤海史也属于韩国史的范畴。并且，在提到朝鲜时代世宗的成果时，使用了训民正音作为事例。作者不仅想通过此内容表现韩语的优秀性，还想说明韩国人文字生活的独立性。

在历史叙述内容中也没有遗漏壬辰倭乱的相关内容。这是韩国历史上最大型的兵乱。同时，在作品中还叙述了李舜臣将军的活跃表现。并且，因为壬辰倭乱带来的国力衰退和人口减少，导致朝鲜后期的社会经济陷入困难，最后导致亡国。

作者强调了特别是在丙子胡乱之后，北伐受挫，人们开始毫无意义的文化崇拜，而忽视了国防。在这种情况下，遇上了大局变迁，周围的列强相互斗争，经常发生事变，天灾人祸的情况变得更为严重了。尽管有在内部寻找亡国的原因，但作者强调了最根本的原因还是外部的侵略。

这节课，我们学习了《韩国通史》开头部分的地理概要和历史概要。由此可知，朝鲜半岛是韩国史的主要空间，而且满洲也包含在内。在历史概要中，把古朝鲜作为韩国史的起点，强调了历史的悠久性和独立性。并且，对于亡国的原因，提到了在内部寻找相关原因的同时，也受到了外部侵略的影响。

下节课，我们将学习揭开韩国近代史序幕的大院君政权和门户开放的问题。



12-2 对于拒绝门户开放和门户开放的解读

各位同学，大家好。我们刚学习完 《韩国通史》开头部分的地理概要和历史概要。这节课，我们将以《韩国通史》叙述的主要事件内容为中心，正式地开始对于《韩国通史》这部作品的解读。

首先，在正式开始解读之前，我想要先聊一下一些影响韩国近代史发展过程的事件。主要包括了壬午军乱，甲申政变，东学农民战争，甲午改革，独立协会运动，乙巳勒约，义兵战争，日本帝国主义强占大韩帝国等重大事件。从这些事件中，都可以看出自主和近代化，侵略和抵抗等特征，为后来韩国史的发展产生了巨大的影响，对现代社会韩国人的生活也产生了很大的影响。

首先，我们来学习一下对于拒绝门户开放和门户开放过程产生影响的，揭开韩国近代史序幕的大院君政权。

对于大院君政权，普遍认为 《韩国通史》是具有代表性的记叙作品，可见这本书对记录该政权产生的巨大影响。那么，现在我们来看看在《韩国通史》中塑造的大院君形象。

首先，来看一下朴殷植对于大院君政权的历史评价。

独断专横，权倾天下，并没有想要招进人才。他在手握政权后，就急于大兴土木（重建景福宫等），开始横征暴敛，滥用刑戮，制定了闭关锁国的政策，拒绝顺应世界的发展形势。这些都是他的缺点，也是有事实可以证明的。

朴殷植举例锁国政治、景福宫的重建等来评价大院君的过失。但是，他也强调了大院君的改革。即，作者也认可大院君在政治上的革命。例如，终止了擅权政治，排除了权威的干预，打破了出身和门第的限制，实施了户布制，废除了书院等等。朴殷植用了“政治上的大革命家”这个词来形容大院君。

在评价壬午军乱的过程中，作者强调在大院君执政期间，财政充裕，官吏清廉，没有发生民不聊生或兵变的情况。而梅泉黄玹的评价则与此截然不同，他没有提到大院君政权的改革，只提到了景福宫的重建和独断专横的政治统治，对大院君的统治进行了指责。

身为两班的黄玹，对于大院君的租税改革并不满意。而朴殷植之所以会对大院君的改革有如此高的评价，是因为朴殷植摆脱了以两班为中心的历史观，而这个历史观也是黄玹所坚持的。



接下来，我们将学习关于江华岛条约的签订的内容，这是韩国近代史中一个具有划时代意义的事件。朴殷植也批判了大院君拒绝门户开放的行为，还有于1876年签订的江华岛条约。如果用之前的两者择其一的方式来思考朴殷植提出的自强论，那肯定是无法理解的。我们来听一下他说了什么。

我国要具备自修自强的实力，才能开发门户，与列强维持良好的关系，在商业往来和商品进口中获利。如果没有这种保护自己的实力，就贸然地去掉这些围栏，并且让外人看到内部的情况，只会把弱小丑陋的一面展示给外人，只会唤醒外部列强吞并的野心，而开放的行为正是为列强的侵略提供了便利，这种开放的政策会导致国家走向灭亡。和外国人的商战现在已经开始了，我们的商业实力如果具有竞争力的话，就不会一天到晚对手中的资源感到忧心忡忡，我们有这样的实力吗？

他这样的观点长期不敌开化主义者的主张，始终没有得到关注。没有准备的港口开放，会导致国家灭亡。这绝对不是卫正斥邪派的指责，而是依据当时的现实情况，作出的历史判断。作者自己记录了江华岛条约的全文内容，指出这是一个不平等的条约。

港口开放之前，就掌握国际的形势，为条约的签订做充分的准备。并且推迟接受日本的开放港口的请求，还有充分地积累关于国际法的知识的话，情况会有所不同吗？但是，后来历史学家们只强调在卫正斥邪和急进开化中两者选其一，认为后者的方向是最好的选择，我们有必要思考一下这样会造成怎样的结果。

并且，朴殷植引用了李鸿章的忠告，他提到像比利时和丹麦等弱小国家，与欧洲国家签订了平等的条约，强调了内修外交和军备扩充的重要性。

如朴殷植担忧的一样，根据江华岛条约和朝日修好条约附录的规定，韩国遭受了惨重的经济损失。即，在朝鲜同意了赋予领事裁判权和免关税的政策后，国内产业失去了保护，加速了外部势力的经济渗透，对大多数国内商人的商业主导权造成了威胁。

这也造成了在贸易规模不断扩大的同时，贸易收支持续恶化的结果。1889年，进口额高于出口额2倍以上，所以除了极少数的产业之外，大部分的产业都走上了没落的道路。在没有准备的情况下，开放港口会造成怎样的后果部分，朴殷植指出的后果，与这一结果相似。



所以，在外国势力这种经济渗透的影响下，国内物价高企，引起了国内贫民阶层的不满。1882年，对于壬午军乱也流露除了不满。

这节课，我们学习了对于拒绝门户开放和门户开放的解读，揭开韩国近代史序幕的大院君政权。下节课，我们将学习《韩国通史》中关于自主和近代化的内容。





12-3 对于自主和近代化的解读

上节课，我们学习了对于拒绝门户开放和门户开放的解读。这节课，我们将学习《韩国通史》中关于自主和近代化的内容。

像上节课提到的那样，开放港口的影响很大，带来的负面影响也不小。壬午军乱是一场为了反对外国势力而爆发的运动，而在镇压壬午军乱的过程中，也爆发了甲申政变等反对大清帝国干涉的运动。我们来看一下壬午军乱和甲申政变。

壬午军乱发生于1882年（高宗19年6月），是以底层军人为主体的，在首尔爆发的城市底层人民的大规模反抗运动。而这个事件发生的时间节点正是丙子修好条约和朝美修好通商条约签订后，政府开始正是实施门户开放政策，所以有许多后代的历史学家们都对这个事件尤为关注。

那么，在1882年进京，直接目睹了壬午军乱这一事件的作者，又会对这个事件具有怎样的看法呢？与现在的研究不同，作者试图从闵氏戚族的腐败堕落中寻找这个事件发生的原因。不仅仅是作者一个人持有这种观点，当时的黄玔或郑乔都有相似的看法。黄玔尖锐地指责了在明成皇后的元子出生后，为其祈福将国库挥霍一空的行为，以及闵氏戚族的腐败堕落，说这些行为亏空了大院君积攒的国家财政。

但是这样的兵变运动规模急剧地扩大的原因是？对此，作者只从“动乱”本身寻找原因，并没有提及和大院君的关系。根据作者的叙述，大院君为了安抚这些士兵，派出了李景夏，他把士兵赶走了，引发动乱的士兵们直接找到了大院君，向他哭诉了自己的委屈。

作者强调了大院君接到高宗的命令后，虽然尽力去平定安抚，但乱军们没有听从大院君的话，还擅自展开了行动。即，大院君按照高宗的命令平定兵变失败了，乱军占据了主导权。

而郑乔在其编撰的《大韩季年史》中指出，大院君想通过这个事件来巩固自己的政权。即，大院君教唆乱军们发起了兵变，想借此攻击闵氏戚族。这就是所谓的密计说。现在，在学术界特别重视密计说，大院君并没有从一开始就主导壬午军乱这个事件，但在其发展过程中深度地进行了参与，使得活动规模迅速扩大。



由此可见，朴殷植的这种主张并没有参考密计说，而是关注乱军的独立性。这是一个值得关注的点。特别是作者在整理的过程中提到，对于在壬午军乱后，大院君麾下许多他信任的人物，全部都被杀害了，这一点十分值得关注。作为士大夫，作者悲痛地感叹道，为了民族和国家流血捐躯的人很少，但是由于政局动荡，流血事件却一直在发生。

作者强调道，因为壬午军乱，日本和大清帝国开始积极地干涉朝鲜政府的内政。即，大清帝国在镇压壬午军乱的同时，在朝鲜国内占据了主导地位，日本为了挽回这种局面，帮助急进开化派发动了政变。

在阅读《韩国通史》时，作品中对于历史事件的生动描写使得作品别具一番风味。对于甲申政变的叙述内容和史论自然也不例外。相关内容的占比也很大，因为作者自己也生活在这一时期，所以记录的内容也没有抱残守缺。并且，当时几乎没有像甲申政变这样受到历史学家和普通人关注的其他事件发生。由此可见，当代人眼中的甲申政变已经是当时最引人关注的事件。

1884年，甲申政变是金玉均和朴泳孝等急进开化派人士，为了推进改革而发起的政变。尽管“三日天下”结束了，但对于之后的改革运动产生了不小的影响。但是，作者将甲申政变命名为了“革党之乱”。

“甲申”这个名称是因为将1884年换算为60干支，那么“革党之乱”这个名称又是怎么来的呢？这是因为他认可革命政党的运动，所以取名为“革党”，而因为这场活动具有“动乱”的性质，所以没有取名为革命，而是“动乱”，应该是这样吧？

作者指出学术界普遍认为，1882年壬午军乱后，大清帝国对朝鲜的内政进行了深度的介入，将大清帝国的洋务运动和日本的明治维新作为标杆，在鼓励改革的的东道西器派和急进开化派之间产生了矛盾，并且矛盾不断地加剧。

有一个明显的例子是受困于国家财政危机的闵氏政权和急进开化派，走向了两个极端。

但是，作者作为生活在当代的人物，聚焦于事件爆发的本身。首先，包围着朝鲜的东亚国际局势发生了变化，以及国内政治势力的斗争，都是引发政变的背景因素。





作者否认了日本帝国的主导说，强调了金玉均等人为了消除大清帝国势力的影响，请求日本明治政府的支持，从而引发了政变这一事实。而这一政变是由金玉均主导的，日本方面协助的。由此可见，日本学者一贯主张的日本使噤说是一个非常荒唐的观点。

对于甲申政变的爆发和开展过程，作者使用了非常生动的文体进行了栩栩如生的描写。邮政局的全称为邮政总局，在其落成仪式后，作者对于参与者的受害过程的描写十分生动。其中，对以后的问题产生关键性作用的是，高宗是否应允金玉均邀请日本公使进行护卫。虽然日本军队只派出了1个中队的兵力，但日本兵力进入了宫内，从而引发了政变，因此这也成为了个需要一决胜负的问题。

所以，对于高宗的亲笔信的历史叙述内容，后来众说纷纭。据记载，金玉均在政变后留下的甲申日录作品中记录了，高宗在收到金玉均的请求后，用铅笔在白纸上亲笔写下了“日本公使来护朕-日本公使来护卫我”这几个字。

但是，这一陈述内容是虚假的。因为当时像竹添进一郎的观点一样，日本公使宫本武藏在亲笔信中被称为“日使来卫”。政变的当事人金玉均忘记了这个4字的语句，而记得7字的语句，应该是金玉均自己想要把政变这件事变得正当化。

用作者的话来说，金玉均想要发动日本的兵力，但高宗拒绝了，他们随心所欲地在白纸上写了“日使来卫”这四个字，向日本公使请求兵力支援。作者这样的叙述，与郑乔的《大韩季年史》的叙述内容一致，都记录了当时朝鲜政府向日本邀请兵力支援的事实，这一事实可信度很高。

除此之外，对于事件发展过程的生动叙述，对于现在学术界的综合性和系统性的研究都有很大的贡献，而且相关的内容记录得非常正确。即使朴殷植不在现场，但是通过他们的口中，或者收集相关的资料，可以很好地了解到甲申政变的情况，相关的记叙内容就是很好的证明。

甲申政变是金玉均一派试图掌握政权，使用了非法的手段引入日本的兵力发动的政变。但是和已有的历史书记载相同，和近代历史叙述不同，作者进行了批注，以史官的身份对甲申政变进行了评价。

首先，从政变势力对于日本的过度依赖这点可以明显地看出甲申政变的性质。作者从熟知甲申政变情况的朋友口中得知了这一点，并且传播开来，表达了他自己对于甲申政变的看法。

即，他评论说，“我们的进步对于他们来说是不利的，如果我国有进步的势头，他们势必想尽一切方法来破坏，怎能相助呢”，指出政变势力不知道日本的意图，而遭到了利用。



并且，书中还介绍了金玉均和朴泳孝的流亡生活，指责了日本赤裸裸的背叛。作者承认推动政变的主谋是革命家。但是，阅历不足和研究不够深入，还有急剧地推进政变，受到这些因素的影响，政变最终走向了失败。用他的话来说，比起突发政变这个方法，通过启蒙运动来获得人心的方式更合适。

总之，革命家应该不顾天下的困难，凭借自己的力量进行推进，对于他借助了他人的力量这点进行了批评。所以，作者在结语部分指出，没有了解清楚天下的局势，只不过是凭着一腔热血和锐气发起的活动，所以一定会走向失败的道路。

但是，这里值得注意的一点是，尽管对于甲申政变的发展过程进行了详细的介绍，但和郑乔的《大韩季年史》不同，并没有记录政变势力公布国政改革案的内容。从叙述的内容来看，作者自己并没有亲自见到主导政变的人物。这是在作者的甲申政变的叙述部分，表达自己留有遗憾的一点。

最后，在作者的评论中不能错过的一点是，作者传递了日本国内的知识分子层敬仰金玉均这一观点。作者在指出金玉均是甲申政变的主导者的同时，为了指出甲申政变的局限性，引用了相关的内容。

1894年，全罗道西北部一带，发生了我国历史上最大规模的，有组织的，全国性的农民起义。这就是我们说的东学农民起义。这场运动是民乱的延续，是东学主导的动乱活动。

东学党之乱是以农民为改革的主体，基于这一时期需要解决的土地问题，提出了税收，身份，外国商人的经济渗透等问题，要求政府进行改革。在设立执纲所后，开始实践改革方案。

所以像这种东学党之乱，当时朝廷虽然进行了镇压管理，但是对于大部分的知识分子来说，受到了很大的冲击。朴殷植也是因为目睹了这个事件的发生，所以花了很多的篇幅来记叙东学党之乱这个事件。这个事件在韩国近代史上属于最重大的事件，对于日后的历史发展走向起到了决定性的作用。

作者指出，在经历了东学党之乱后，开始进入韩国国内动乱和中日对战的时期。在东学党之乱爆发的时候，作者刚好在首尔，可以细致地观察到政府的举措，以及发表自己的看法。



所以，作者在叙述东学党之乱之前，详细地叙述了和动乱有着密切关系的，东学这一学派的起源和思想。我们首先把东学和东学党之乱两者联系起来看看。所以，在东学得以广泛传播的时代背景下，不仅提到了郑鉴录的影响，还找到了两班和普通百姓还有庶民之间的身份对立，土豪们的武断，官吏的贪婪和掠夺这些影响因素。东学在这种情况下顺应形势，提出诛杀贪官污吏，救济民生，扫荡奸党，扶持国家的观点，并且被广泛地传播开来。

东学党之乱的发展过程可以大致分为两个阶段。一个是古阜民乱，另一个是因为李容泰的镇压引起的民乱，最后发展为东学党之乱。其中，作者重点关注了第二阶段的东学党之乱，虽然在正文部分没有具体地提到这部分的内容，这个事件的开端是全琫准，金开男和孙华仲三人举行的白山大会。

这种说法在过去很长一段时间都被认为是正统说法。但是，最近以申勇夏（音译）教授为代表的研究者发掘了更多的研究资料，确定了现在全罗北道高敞郡的茂长为东学党之乱的最初发源地，所以这一事件也被称为茂长起义。

而作者发生这样的错误，是因为当时东学党之乱的信息并没有传达到中央。而且他分为了4个阶段，分别是古阜农民起义，第一次东学农民起义，执纲所和第二次东学农民起义。

需要关注的一点是，日本之所以介入韩国问题，和金玉均暗杀事件有关。作者留意到这一事实，指出日本民间对此事都深表遗憾，想要通过武力洗刷冤屈，从而引起了国际关系破裂。但是，如甲申政变说明部分的内容提到的那样，日本政府和极右知识分子阶层为了找借口发起中日甲午战争，这是一种政治手段，所以我们有必要直面这个现实。

但是，通过作者的看法，可以了解那个时期知识分子阶层对于东学的评价。即，作者批判了东学的迷信思想。特别是东学党原本就具备了政治思想和革命的性质，作者指出了东学思想具有愚昧无知的缺点。

但是，东学党之乱这场运动，让一直存在的严格残酷的阶级观念彻底崩塌，可以说是在改革中发挥了先驱作用。而且，如果这样的军队进驻首尔后进行改革，外部很难干涉，会导致西欧革命的血腥场面在东亚的半岛上演。

并且，甲午东学党之乱的过错在于政府，政府却把过错转嫁到了农民的身上，并且向大清政府请求出兵支援，作者对此进行了批判。不仅如此，作者在听到朝鲜政府向大清政府请求出兵支援的消息后，曾要求当局停止向大清政府请求出兵支援。



根据这段话我们能感受到作者的顾虑，第一，朝鲜政府央求其他国家出手相救，对于国家来说是一个很大的耻辱。第二，从中日两国签订的天津条约来看，如果外国派遣军队的话，那我们国家也很难安然无恙。而且，他的预感是正确的，这点真是令人感到痛惜。历史学家认为，从这些关键内容中可以侧面看出为了解决当时的问题，实用派知识分子阶层的烦恼。

还有值得关注的一点是，作者并没有忽视中日甲午战争相关的内容。他简要地叙述了中日甲午战争的情况，并且指出在日本军队周密的计划面前，李鸿章的外交论也败下阵来。

他撰写这段叙述内容的时候，应该没有阅读当代的历史资料，而是参考了中东传记相关的内容。可能是因为这样，所以并没有指出中日甲午战争中的宣战国，也没有指出是谁先发动的袭击。

这节课，我们学习了东学党之乱和中日甲午战争的相关内容。如果说东学党之乱是想要解决朝鲜社会自身的问题，而发起的革命运动，那么后者就是包围朝鲜半岛的外国势力之间的角逐战。由此可见，这两个事件对于朝鲜半岛的命运起到了分水岭的作用。

下节课，我们将一起学习《韩国通史》中关于近代改革的内容。



12-4 对于近代改革的解读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韩国通史》中关于自主和近代化的内容。这节课，我们将一起学习《韩国通史》中关于近代改革的内容。

东学党之乱和中日甲午战争为朝鲜政府留下了不可磨灭的痕迹。我们将学习以下内容，包括了甲午改革和反对改革的俄馆播迁事件，以及大韩帝国的成立，以及让大韩帝国走向灭亡的俄日战争。

甲午改革，是指从1894年7月至1896年2月为止的，朝鲜政府推动的一系列改革运动。尽管从表面上看，是改革引起了日本的侵略，但从内部来看，与以东学党之乱为代表的国内群众发起的改革运动有关。通过甲午革命，不仅改革了税收制度和财政制度，还通过法律废止了身份制。除此之外，还引入了裁判机关的制度，为近代学校的设立打下了基础。

作者也十分关注这样的近代改革，详细地介绍了军国机务处通过的议案内容。军国机务处是在日本的强制要求下设立的，特殊的改革推进机构。但是在日本被卷入中日甲午战争后，这个机构主要的掌权者变为了政府和开化派，一定程度上反映了农民的要求。来自日本的干涉有所减少，朝鲜政府开始独立地推进改革。这一成果也在军国机务处的议案中有所体现。

所以，作者以军国机务处初期通过的议案为中心，对于改革的方向和成果进行了简单的介绍。在作品中，主要包括了以税收制度和财政制度，身份制废止和官吏选拔制度的改善等内容。

其中，最值得关注的议案是在会议之初通过的第1号议案，即“今后国内外的公务文书需要写明开国纪元”。通过这个信息，作者阐明了朝鲜已经脱离了中国支配体系这一观点。在那之前，朝鲜一直在公务文件上使用中国皇帝的年号，从那之后这一形式被废除了，表明了朝鲜政府想要脱离中国支配体系的意图。

这一议案通过决议的时间节点正是中日甲午战争爆发之后，我们可以看到朝鲜政府想要取得与大清帝国平等的地位，推动国家往这个方向发展。接着，第2号议案也是修正了中朝商民水陆贸易章程等一系列不平等的条约，挽救了在袁世凯的干预下化为泡影的权力，西欧各国也开始重新派遣使节。



而且，对外关系的改革并没有止步于此，出台了重要的改革议案，而且该议案还涉及了对内的政治，经济，社会等方方面面的内容。所以，读者们通过这样的议案，可以了解甲午更张的近代性。虽然作者没有对甲午改革进行具体的评价，但是从作者将原题目命名为“我国改革的新政”这一点来看，作者对这场改革的评价很高。

特别在这个章节中最值得注意的一点是在史论中谈论实学这一点。作者敬仰的丁若镛曾批评过只重视性理学而远离财政、军事、刑罚、外交等领域实用知识的知识分子。作者显然与这些山林派或遗逸派知识分子不同。

即，尖锐地批判了过去性理学和朋党的弊端。礪溪柳馨远，将茶山丁若镛和燕岩朴趾源等人把改革论称为大政论，并关注他们的改革案。

更进一步来看，这一改革论批判了过去性理学和朋党政治的弊端，成为了日后发展实用性的和功利性的学问的基础。这是实学的发现。正如众所周知的一样，改革了以前的地主制和身份制，保障了小农民和底层人们在经济社会生活中的发展，想要建设可以实现富国强兵目标的体制。

所以，他对于甲午改革的认识和评价，提供了反驳日后提出的他律性论的依据，他们主张改革实际上是在日本政府的干涉和指导下施行。现在，韩国学界克服了日本学术界提出的他律性论，认为甲午改革的自律性尽管被日本的政治、军事干涉而有所动摇。但它继承了之前改革的传统，接受了大多数的农民的要求，从而为近代国家的建设做出了贡献。

还有在改革过程中发生的明成皇后弑害事件，也是一段直至今日还未完全查明的，引人注目的内容。是因为日本有组织性地隐瞒了该事件。即便是这样，作者还是详细地记叙了事件的始末，基于在那之后我国政府在调查明成皇后弑害事件的过程中出具的权载衡报告书，格雷特豪斯报告书等内容，进行了内容的重组和认真地叙述。

其中，值得关注的资料内容是，权在衡编写和提交的“事变官方报告书”，以及附上的确认了该内容正确性的，法部顾问格雷特豪斯出具的确认书。这些资料是我们政府对于1896年1月20日广岛地方预审裁判所出具的“朝鲜事件预审结束决定书”结果进行反驳的报告书，基于此也可以知道我们政府当时的立场。



在俄馆播迁事件发生后的1896年 2月 11日，高宗指示要对于“事变”作出完整和公平的调查，所以时任法部协助判官兼高等裁判所法官权载衡编写了相关报告书，法部大臣兼高等裁判所所长李范晋提交了相关报告书。法部想让官报对相关内容进行刊载，迫于提前知道这件事的日本公使的压力，官报最终无法刊载相关内容。

该内容被刊载于在韩外国人出版的Korean Repository 1896年3月号，这个事情让独立协会徐载弼知道了，用韩语写了300本小册子，使得该内容得以刊载。政府的这些措施，是为了反驳日本广岛地方预审裁判所出具的“朝鲜事件预审结束决定书”，要将日本的野蛮行径昭告天下。

作者收集了这些资料，并很好地使用了这些资料。这里也附上了日本广岛地方预审裁判所出具的“朝鲜事件预审结束决定书”。和其他主题的内容不同，作者将相关的原文资料完整地进行了刊载，原文资料不仅反映了当时微妙的国际关系，还反映了当时已经有韩国人知道了正确的事件内容。

所以，很多儒生和农民也对明成皇后弑害事件的调查结果进行了反驳，从而引发了聚众起义。对此，政府和日本派遣军队前去镇压。像贞洞俱乐部等与欧美外交官有着密切关系的组织伺机而动，在高宗和世子逃到了俄罗斯公使馆后，甲午开化派的内阁就垮台了。这就是俄馆播迁事件。

1896年2月，在高宗进入了俄罗斯公使馆，发生俄馆播迁事件后，金弘集内阁垮台了。以此为契机，俄罗斯和日本之间重新回到了平衡的状态，新政府接受了近代文化事物，想要国家走向富强的道路，对于大众的启蒙运动也十分关心。首先，将引入西方事物的徐载弼任命为中枢院顾问。以徐载弼为代表的开化派知识分子阶层，借此机会成立了独立协会这个组织。

在独立协会中，政府官僚和开化派知识分子一起管理相关事务。普通群众不仅帮其筹集资金，还积极地参与了宣讲会。从独立报纸的出版和独立门的建立等具有代表性的事件可知，这一变化对于政府，独立协会和国民都产生了影响。

高宗从俄罗斯公使馆搬到了庆运宫，国家地位提升的氛围逐渐形成，这时不断有使用皇帝称号的上疏文出现。店铺商人也积极地加入到这个上疏队伍中来。对此，高宗把国号定为大韩民国，将年号定为光武，举行了皇帝的登基典礼，具备了自主国家的雏形。



“大韩”这一国号，来源于“三韩”，意为将三韩合并为一个国家，“光武”这个年号，是借用了重建了中国汉朝的后汉皇帝光武帝的年号，其中蕴含了富国强兵的意味。1897年10月3日，高宗在谢绝了多次臣子和百姓的邀请后，终于接受了他们的提议。接着，12月，高宗身着黄龙袍，在圜丘坛举行了皇帝的登基大典。

但是，作者对于政局变动的关注点，与题目表现的不同，相较于大韩民国体制，更关注独立协会。因为作者认为，独立协会的活动属于爱国运动和民权运动，而大韩帝国政府依靠强大国生存，所以为了巩固统治，对独立协会的活动进行了镇压。并且，作者从一开始就支持独立协会，并且揭露了日本支持当局政府进行独立协会活动镇压的事实。

但是，作者对独立协会也进行了尖锐的批判。独立协会太急于推进政治改革，太过于渴望成功，所以造成了冲突的发生。更进一步来看，独立协会的知识根基因为积累的时间较短，所以难免会有阻碍，追求虚荣，处事狂妄，所以难以取得进一步的发展。

由此可见，通过这种指责的内容，可以从另一个角度认识独立协会。总之，作者认为的革命方向是，巩固我国的国民力量，走上自强之道。

但是，因为日本发动的俄日战争，韩国人的努力付诸东流。作者也知道俄日战争在韩国近代史中的重要地位，所以对于战争的情况进行了详细地描写。相关内容可以称得上是战争史，包括了陆战，海战等多种多样的战争，作者对此逐一地进行了介绍。而且还展示了日本战胜俄罗斯后，在西方列强的默认下，使用非法手段和武力强占大韩帝国的过程。

特别是在战斗过程中，日本军强占大韩帝国的疆土，强制征用韩国人参战的惨状。而且当时有传闻显示，韩国人如果被日本军征用的话，他们就会成为战场上的挡箭牌。甚至，如果韩国人拒绝日本人的征用的话，那么就会被污蔑为俄罗斯的间谍，遭到杀害。

最具有代表性的是，作者揭露了日本军一系列的野蛮行径，例如日本军占领了龙山一带的土地作为军用土地，不仅拆除了韩国人的民用住房，还破坏了普通人的田地和墓地。并且，为了客观地证明这种野蛮行径，作者也引用了西欧人的游记和著作中的内容。从而表现出俄日战争对于韩国人到底具有怎样的意义。

下节课，我们将学习关于日本帝国的侵略及反抗的内容。



12-5 对于日本帝国的侵略及反抗的解读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韩国通史》中关于近代改革的内容。这节课，我们将学习关于日本帝国的侵略及反抗的内容。

我们先来看一下在《韩国通史》中，展现的俄日战争后日本帝国侵略的过程到底是怎样的，以及韩国人对此做出了怎样的反抗。

日本在1905年取得日俄战争的胜利后，为了使韩国成为保护国，乘势开始开展地下工作。所以，在同年11月18日，全副武装的日本军队将宫殿层层包围，强迫高宗和大臣签下了乙巳勒约，使得大韩帝国成为了“保护国”。

在乙巳勒约中，没有对日本政府的约束条款，反而是韩国政府丧失了和其他国家签订条约或协定的权力，也就是说韩国完全被剥夺了外交主权。并且，在乙巳勒约中规定了日本只派1名统监，来管理韩国的外交事务。但是，统监的管理范围不局限于外交事务，而是掌管韩国所有的内政。

作者在叙述乙巳勒约的过程中，使用了1905年11月20日出版的《皇城新闻》刊登的题为“五件条件约请缔约颠末”的新闻内容。不仅叙述了日本帝国主义的胁迫和强迫签署条约过程，还重点叙述了高宗和部分大臣强硬的反对态度。在作品中，还描写了对于伊藤反抗到底的参政大臣韩圭高，特别是其有条理的批驳和正气凛然，有情有义的行为，强调了该条约是韩国在日本胁迫下签署的。

这段内容证明了日本军进入外交部，抢夺了图章，并进行了盖章。作者认为，如果这一条约是在国家代表被强迫的情况下进行签署的话，那么可以被认定为是无效的条约。由此可知，作者通过详细地描写大臣们的一举一动，清楚地展示了乙巳五贼诞生的过程，并且想要留下相关的历史记录。

但是，对于这一记叙内容，如果不是当时参会的人士，很难正确地对会议过程进行记录，而且日本当时执行了严格的检查。从这点来看，作者应该是以传闻为基础，收集了参会大臣的相关资料，并为此付出了巨大的努力。所以，随着《韩国通史》的出版，将乙巳勒约的非法性昭告天下，这也成为了后续对于乙巳勒约非法性研究的基础。现在有很多的研究者都对相关条约展开了严谨的研究。



一般而言，条约的成立一般要经历3个步骤，分别是委托，盖章和批准，但是作者指出这个条约的签订，完全没有进行上述3个步骤中的任一步骤。首先，高宗并没有将条约的签订权委托给外交部大臣朴齐纯，也没有委任状，所以这个条约是无法成立的。所以，当时并没有盖上大韩帝国政府的图章，而是当时日本帝国的军队抢了外交部大臣的图章，盖在了相关文件上。

高宗直到最后不同意条约的内容，因为他对此并不认可，所以直到最后也没有批准。所以，当时的社会舆论也没有把这个条约称之为“条约”，而是用了“勒约”进行代称。在那之后，对于乙巳勒约，高宗一直在提出异议，寻求国际社会的援助，想要告知大家该条约是无效的条约。并且，1906年，法国著名的国际法学者弗朗西斯·莱也主张该条约是无效的。

尽管如此，1905年，日本强迫韩国签订了乙巳勒约，在西欧列强的沉默和支持下，大韩帝国被迫向日本交付了外交权和内政的统治权。在此背景下，韩国人开展了启蒙运动和抗日义兵战争。

首先，以高宗为代表的王室向国际社会控诉了乙巳勒约的非法性。而海牙密使事件则是具有代表性的事件。

俄罗斯的尼古拉斯二世提议举行万国平和会议，在此背景下，其于1906年4月，向高宗发送了邀请其参加第二届万国和平会议的邀请函，所以海牙密使事件也成为了扭转局面的一个契机。高宗为了让国际社会知道日本侵略的真相，以及乙巳勒约的无效性，准备派遣特使参加计划于同年8月举行的该会议。但因为日本列强选择不参加该会议，所以会议最终也没有如期举行。

接着，该会议延期至下一年举行，于1907年6月召开了该会议，高宗派遣了特使参加。虽然特使们的行动因为受到了日本方面的阻挠，而最终宣告失败，但是这一事件也向各国展现出了大韩帝国政府为了守护国家主权而做出的努力。这个消息也被刊登在1907年7月21日出版的《大韩每日申报》上，这使得国内的许多民众又重新燃起了希望。

作者充分地认识了这个事件的重要性，因此详细地记叙了事件的内幕。但是，和其他的章节内容不同，他先写了自己的认识和国际社会的认识。他以社会进化论为基础，尖锐地指出了海牙密使事件中体现出的国际社会的残酷无情的秩序，以及列强的利己主义。通过这些内容可以看出当时作者已经可以冷静地看待国际形势了。



他指出万国和平会议本身就是帝国主义国家之间的斗争与妥协的产物，而我们的国家被和平这个词所迷惑了，才会派遣特使去参加。他的这个看法，已经在1911年撰写的《梦拜金太祖》中有所提及，具体内容如下。

“所谓和平裁决是依据国际法进行的谈判，只不过是政权的掌握者和胜利者的一种手段而已，实际上对于弱小的，处于劣势的国家，连伸冤诉苦的地方都没有。”

在其他提到和欧美列强签订条约的章节内容中，也充分体现了他的这种认识。按照他的理解，“所谓条约协定，不过是把整理好的文字呈现在纸上而已”。按照作者的话来说，他认为“没有自强自立的实力，却一味地相信外国人的甜言蜜语，然后放下戒备，这个行为更加速了国家的灭亡。”

接着，作者记叙了义兵战争的相关内容，在军队解散后，有很多大韩帝国的军人们参加到这个战争中来。因为军人們的参与，完全改变了战争的性质。到1907年为止，义兵们的活动地区扩大至朝鲜半岛的全域，在间岛，沿海州地区也开展了义兵运动。因为有军队解散后的军人参与到这项运动中来，所以在武器和战术，军纪，军事训练等方面的能力都有所提升。

在那之后，受到日本帝国主义的镇压，这些军人重新越过国境，去了满洲。并且，在这里也培养了独立军的骨干。具有代表性的是，新兴武官学校的大部分教官都是大韩帝国军队的军官。这也为培养独立军打下了基础，为日后凤梧洞战斗和青山里战斗的胜利作出了贡献。

所以，作者在后来编撰的《韩国独立运动之血史》中，对于在参与人数上占据压倒性优势的，军队解散后的军人，和儒林学派一起作出了以下的定义。“所谓义兵，就是民军。他们是在国家危急的时刻，出于情义挺身而出的，无需等待朝廷的征兵令就选择从军的，有一腔怒火想要上战场杀敌的人们。”

20世纪之初，1909年10月26日发生的安重根的伊藤博文暗杀事件，对东亚各国的人民造成了巨大的冲击。日本帝国主义当时没有遵守约定，侵吞了朝鲜半岛，而且想要把满洲据为己有的野心呼之欲出。不仅是对于这一事实只可以无能为力地旁观的韩国人，还有中国人也为了伊藤博文暗杀事件而感到欢呼雀跃。

所以，有许多的韩国知识分子都希望能将这个事件留于史册，把安重根的经历和思想整理成了传记，并进行出版。其中，最具有代表性的安重根传记就是作者朴殷植于1914年出版的《安重根传》。所以，为了更好地了解作者对于安重根的认识和评价，我们有必要阅读一下作者撰写的《安重根传》的序言。



从历史（经历）的角度来看，安重根可以说是一名为国捐躯的有志之士。而且可以将其称之为，为韩国复仇的烈士。但是，这并不能代表完整的安重根，如果只从这个角度来看会有些片面。安重根是一个具有全球视野（眼界），并认为自己是和平战士的人…安重根暗杀了他（伊藤），希望能以此谋求世界的和平，因为他认为伊藤是和平的公敌，如果不能根除掉他，那就无法阻止后续灾祸的发生。以一个人的性命，来换取世界和平，这是一种无偿的幸福。最后双方的理念冲突发展到了水火不容的局面。这是作者对于安重根的叙述，在作者眼中安重根是一个具有全球视野（眼界）的人，并认为自己是和平战士的人。作者又怎么会认为他的暗杀只是为了给韩国复仇而做出的行为呢？

由此可以看出作者叙述安重根经历的原因。相较于安重根击毙伊藤这个事件本身，作者更聚焦于安重根为什么只能选择枪击的原因。

伊藤枪击事件不是恐怖主义活动，不是因为个人一时冲动的功利心。作者还强调了他积极地参与了启蒙运动和义兵运动，领悟到的独立运动的谋略和他花费了长时间构想出来的《东洋和平论》这部作品等具有代表性的事件。

所以，作者将这篇文章称为《安重根传》的精简版，相较于被称为义士和志士的安重根，更聚焦于其东方的和平捐躯的思想家这一身份。这篇文章是从伊藤前往哈尔滨的原因开始叙述的。接着叙述了安重根进行枪击的动机。简而言之，这篇文章的主要基调是构建伊藤的东洋平和论和安重根的东洋平和论之间的对立。

安重根开始批判日本人主张的东洋平和论。他枪杀伊藤的原因是，伊藤破坏了东方的和平，是一个危险的人物，所以要处决了伊藤，从而使日本走上东方和平的正确发展道路。

安重根认为这一切都是伊藤违背日本天皇的意思，擅自做出的行为。这种看法是因为对于日本政治体制的不了解，但是安重根为了让自己有明确的目标，将目标对准了带头进行大韩帝国侵略的伊藤。所以，朴殷植在叙述安重根的成长过程和经历的时候，有将相关内容与他的东洋平和论相联系。

作者特别强调了安重根的东洋平和论，不仅对于韩国人和中国人，对于日本人也产生了影响，他们很仰慕安重根，想要求得安重根的亲笔作品。图片是安重根义士的遗墨。我们来看看其中的内容，“如果想要保全东方社会的话，首先需要改变战略。如果错过了时机和机会，后悔也没用。”



总之，他想让自己名垂青史。朴殷植在通史中，详细地叙述了安重根的义举，这是因为安重根想用自己的忠诚，让以韩国民族为代表的世界上被压迫的民族，以东方和平的崇高思想为基础，在历史上留下印记。通过在走上帝国主义邪途的日本近代史上留下被压迫的民族的呐喊，让世界人民都知道它们被压迫的真相吧？

1910年8月29日日本帝国吞并了大韩帝国。我们国家在1910年庚戌年蒙受的耻辱，被称为庚戌国耻。作者详细地介绍了日本帝国吞并大韩帝国的过程，叙述了日本帝国基于吞并论和一进会的卖国活动。特别是日本帝国从很早就开始筹划吞并计划，在过程中使用了严谨的战略进行推进，在作品中都一一进行了列举。

这也是当时日本的高官经常主张的观点，日本没有企图吞并韩国，而是收到一进会的邀请书后才决定进行吞并，是因为韩国人发出的邀请，才走向了吞并的局面，而作者对于这些观点进行了正面的反驳。

同时，作者还把焦点放在了在日本帝国主义在吞并的过程中，条约的非法性这一点上，立足于国际法，虽然没有逐一地进行指责，但是明确地指出了纯宗拒绝敕谕这一点。这段内容充分体现了缺少批准这一点。作者朴殷植因为不在现场，所以对于颁布敕谕的现场有所误解和夸张。

例如，尹德荣拟了将国家交付出去的诏敕，想让皇帝盖上玉印，皇帝哽咽着说表示不同意，但在皇帝回寝室的时候，自己悄悄地盖了印章，并交给了李完用。

但是，根据传闻显示，事实上玉玺在1907年丁未条约签订后，就被移交给了统监府，所以这一内容的记叙是不正确的。并且，尹德荣拟诏敕这一点也与事实不符。诏敕也是统监府拟的。由此可见，在阅读本作品的过程中，也要充分地考虑到作者叙述的局限性。

但是，尽管作者在叙述过程中出现了这种错误，但还是可以推测纯宗当时没有轻易地答应日本的要求。根据最近的研究显示，在关于国家吞并的诏敕内容中，最后的部分并没有皇帝的名字，即没有亲书的字样，这些信息是诏敕中本应具备的内容。

由此可见，虽然这部作品的内容有出现错误，但为后来的研究者提供了可以带着疑问研究吞并条约的线索和机会。历史学家在如此艰难的条件下，为了留下真相所做出的努力，虽然记录得不完整，但还是发挥了应有的作用，为后续的研究提供了线索。



作者在结论部分再次提到了 《韩国通史》撰写的迫切性。即，从国家的宗教，国家的学问，国家的话语，国家的文章，国家的历史中展示出国魂，只有国魂在，国家才不会覆灭。即使失去了国家，只要有国魂，无论何时都可以找回自己的国家，作为历史学家，有义务留下有国魂的国家历史。

相反，如果国魂没有保留下来的话，无论军事实力中展现出的国魄有多强盛，在国家灭亡的瞬间，会同时失去国魂和国魄。

作者也逐一地列举了历史上相关的例子。小而言之，我国关于渤海历史的部分，在高丽时期一直没有进行整理，渤海在地球上就永远地消失了。大而言之，匈奴，鲜卑，氐羌，金国，元国等国家都具备着强大的军事实力和经济实力，但因为没有国魂，所以最后都在地球上灭亡了。

现在，我们身处于全球化的时代之中。但是，这种全球化并不是多个国家和民族和谐共存，保留各自的历史文化，拥有自己的发展方向。而是强国拥有支配世界秩序的权力，想要寻求文化上的统一，这也引发了更多的矛盾和纠纷。由此可见，为了实现真正的全球化，实现各国的和平与共存，应该朝尊重和保护各地区的人们多种多样的生活习惯这个方向努力。

并且，为此我们不仅应该尊重生命，为本国文化与外来文化的共存提供土壤，还应该完整地保存作为文化发展基础的本国的历史。而且要像认可自己一样，尝试去认可他人的存在，积极地探索共存的方向。这就是和而不同的精神。

这意味着作为人类的一员，我们在提升文化软实力的同时，也应该将他国的发展纳入到整体的计划蓝图之中来，对于人类整体的发展肩负起应有的责任。这样的世界应该就是作者朴殷植梦想中的大同社会。

我们这门课程时长，而且内容也不是很有趣，但大家还是坚持了下来，十分感谢大家的聆听。如果大家能通过这门课程，体会到近代的经典作品 《韩国通史》的韵味和意义，我就已经感到十分高兴了。再次谢谢大家，我们今天的课程到此结束。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박은식이 《한국통사(韓國通史)》에서 '혁명지란'이라 부른 사건은?

5분

- ① 임오군란
- ② 갑신정변
- ③ 동학난
- ④ 독립협회

정답 ②

해설 박은식은 한국근대사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빠짐없이 서술하면서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갑신정변은 '혁명지란'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이유는 갑신정변이 혁당 즉 개혁당의 운동임을 인정하면서도 난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②가 정확한 서술입니다.



02 박은식이 《한국통사(韓國通史)》에서 이른바 동학란(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술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건이나 전투는? 5분

- ① 고부민란
- ② 무장봉기
- ③ 전주성 함락
- ④ 공주 동학교도 진압

정답 ②

해설 동학난은 오늘날 역사학자들에 의해 중요 전투와 모임이 해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학란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은식은 자료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민간인으로서 정보를 입수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날 고창군에 해당하는 무장 지역의 봉기입니다. 전봉준이 1894년 1월 고부에서 민란을 일으켰지만 이용태의 무력 진압에 밀려 실패하자 무장 지역으로 옮겨가 김개남, 손화중과 함께 봉기하였던 것입니다. 동학란이 지역단위의 민란에서 전국적인 봉기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사건이 무장 봉기였습니다. 따라서 ②가 정확한 답변입니다.



03 박은식은 《한국통사(韓國通史)》의 갑오개혁 서술 부분에서 실용 학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인물은 누구인가?
5분

- ① 정약용
- ② 유형원
- ③ 이익
- ④ 박지원

정답 ③

해설 오늘날 한국사학계에서 조선후기 실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매우 풍부하여 일반 개설서와 교과서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하더라도 실학 사상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은식은 여타 역사학자와 달리 이러한 실학 사상을 주목 하하여 갑오개혁 말미에 실학 사상 관련 학자들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박은식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이익의 존재를 잘 몰랐는지 이익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훗날 정인보, 안재홍, 천관우, 한우근 등의 역사학자들이 실학을 집중 연구 함으로써 실학의 면모가 밝혀집니다. 따라서 ③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04 박은식은 《한국통사(韓國通史)》에서 러일전쟁기 일본군의 침탈을 자주 언급하였다. 다음 보기 중에서 일본의 침탈 부분이 아닌 것은?
5분

- ① 용산 일대의 땅을 군용이라 칭하고 모두 점령하였다.
- ② 한국인 가옥을 철거하고 일반인의 전답을 해치고 무덤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 ③ 한국인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 ④ 일진회를 탄압하고 회원들을 체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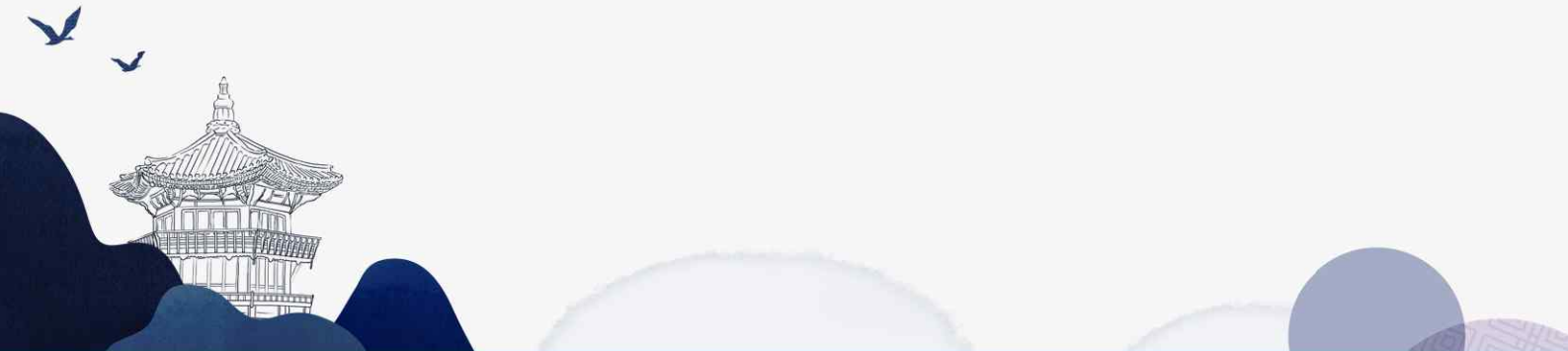
정답 ④

해설 일본군은 러일전쟁 초기 대한제국 정부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체결한 뒤 한반도에서 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일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한제국의 강토를 강탈하고 한국인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또 서울의 용산 일대의 땅을 군용이라 칭하고 모두 점령했으며, 한국인 가옥을 철거하고 일반인의 전답을 해치고 무덤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일제강점 말기 전시동원체제에서 또한번 그 진면모를 드러냅니다. 이른바 조선인 강제연행입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친일파 집단인 일진회를 뒤에서 적극 옹호하면서 친일파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④가 정확한 답안입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주제

박은식의 《한국통사》는 한국 근대 역사학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한국통사》의 서술 방식이 기존의 역사서의 서술 방식과 상이하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전근대 역사책의 서술방식은 크게 기전체(紀傳體), 편년체(編年體), 강목체(綱目體) 등 여러 형태의 서술방식이어서 사건의 인과 관계를 구성하지 못할뿐더러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자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특히 왕의 역사와 신하의 역사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기전체 역사책의 경우, 지배층의 역사를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배제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통사》는 사건의 인과 관계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장절로 구성한 근대적인 서술방식을 지니고 있다. 물론 안중근 서술에서 볼 수 있듯이 위인전 같은 서술 방식도 보인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민족을 역사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고 수많은 민중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런 특징을 두고 근대 역사학의 중요 성과로 평가하고 박은식을 근대 민족 역사학의 원조로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한국통사》에서 국혼(國魂)을 자주 강조함으로써 관념주의자라고 비판받기도 하고 여전히 경전과 역사는 일체라고 주장하는 경사일체(經史一體) 중세역사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자. (60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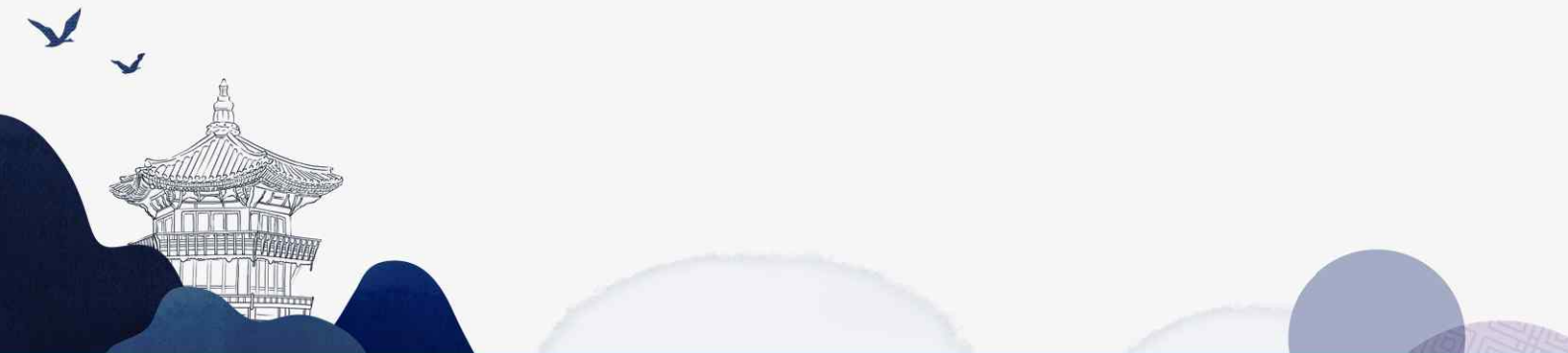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박은식의 역사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늘날의 학자와 달리 전문적인 역사학자 이전에 유학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이 역사 서술에 영향을 미쳐 과학적인 인과 관계 서술에 앞서 도덕적인 포럼에 머물거나 인격 수양 차원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그가 통치 도구로서의 역사학 경향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여전히 중세 유학자의 모습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박은식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시대적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가 1910년 국망에 처해 역사가 이전에 개혁을 추진하고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처지에서 언론 활동을 벌였고 교육 구국운동과 유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역사학에 오늘날과 같은 전문적인 역사가의 자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세대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박은식 자신도 3·1운동을 통해 민족의 내재적 역량을 발견하였을 뿐더러 민중의 활동을 목격하면서 관념적인 서술 방식에서 실천적인 서술방식으로 바뀌었고 자료 수집에 대한 분석도 근대 역사학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발전합니다. 그것은 그가 근대 역사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서술 방법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일회적인 토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조동걸 외 창비, 1994

고대로부터 남북분단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서와 역사가를 총점검하는 사학사론집입니다. 근대개혁기와 항일운동기, 민족국가 건설운동기를 다룬 하권에서는 안종화, 김택영, 정교, 신채호, 박은식, 안확, 정인보, 백남운, 홍이섭 등과 식민주의 사관, 분단시대 남북한의 사학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 박은식평전, 노관범, 이조, 2021

박은식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의 활동과 저술 활동을 상호 연계하여 그의 삶을 추적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역사학자인 동시에 주자학자에서 양명학자로 전환한 인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의 사상 전환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박은식의 역사학에 깔려 있는 세계관, 존재론 및 인식론을 살펴봄으로써 박은식의 역사학을 사학사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역동적으로 파악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리라

웹사이트

- 중앙일보 오피니언 노관범의 독사신론(讀史新論)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87597#home>